

BUY KOREA BUY BOND
채권 투자는 KB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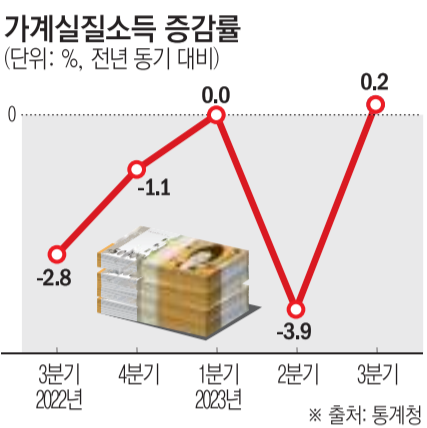
코스피(23일) 2514.96(+3.26P)
코스닥 815.98(+1.37P)
환율(달러당 원화) 1297.50(+3.0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644%(-0.022%P)

제3266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100대 기업 女임원 비율 첫 6%대... 삼성전자 '최다' 4 | 하림·동원, HMM 인수 '2파전' 9

고물가에 얽혀진 지갑 실질소득 고작 1만원 ↑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
실질소득, 5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
3%대 물가 지속에 상승효과 희석
월 503만원 벌어 387만원 지출
소득 증가율 4배 이상 벌어져
고금리 영향 이자비용 24% 급증



올해 3분기 가계 월 소득은 1년 전보다 16만 원 넘게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고물가 여파로 1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저소득 가구인 소득 하위 20%(소득 5분위 별 기준 1분위)는 오히려 소득(-9000원)이 줄었다. 반면 고소득 가구인 소득 상위 20%(5분위) 소득은 200만 원 넘게 늘어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세로 돌아섰다. 다만 3% 이상의 고물가 여파로 실질소득 상승 효과는 크게 희석됐다는 평가다. 고물가 기조가 여전히 가구의 지갑을 얽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소득)은 503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만4000원(3.4%) 늘었다. 전 분기 감소세(-0.8%)를 보였다가 1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저소득층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 간 소득 격차는 크게 확대됐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9000원(0.7%)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1084만3000원으로 227만 원(4.1%) 늘었다. 이들간 소득 증가율 격차가 4배 넘게 벌어졌다.

소득 유형별로 보면 전체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취업자 증가 및 임금 상승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5% 늘어난 322만3000원을 기록했다. 10분기 연속 증가세다. 이자·배당과 관련된 재산소득(3만5000원)도 16.5% 늘었다. 특히 감소세를 지속해온 이전소득(72만9000원)은 11.7% 늘었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사업소득(92만7000원)은 원자재값 상승, 이자 증가, 전년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0.8% 줄었다. 경조소득·보험금 수령 등 비경상소득(6만2000원)은 23.0% 감소했다.

저소득층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 간 소득 격차는 크게 확대됐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9000원(0.7%)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1084만3000원으로 227만 원(4.1%) 늘었다. 이들간 소득 증가율 격차가 4배 넘게 벌어졌다. 2분위(272만7000원)와 3분기(422만2000원), 4분위(624만7000원) 가구도 각각 0.3%, 2.3%, 5.0%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위 가구는 근로소득(-9.2%)·사업소득(-12.7%) 등이 크게 줄면서 총 소득이 줄었고, 5분위 가구는 근로(+6.5%)·이전(+5.2%) 소득이 크게 늘어 총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448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 원(0.2%) 늘어 5분기 만에 증가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87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4.0% 늘었다. 이 중 소비지출(280만8000원)은 오락·문화, 주거·수도·광열, 식료품·비주류음료 등에서 지출이 늘면서 3.9% 늘었다. 비소비지출은 96만2000원으로 8.3% 증가했다. 고금리로 이자 비용이 24.4% 늘고, 사회보험료 5.5% 늘어난 영향이다.

가구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총소득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3.1% 늘어난 397만 원을 기록했다. 소득 5분위별로는 1분위가 0.6% 늘어난 데 그쳤고, 5분위는 3.1% 늘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마스크 꺼내세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7개월 만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23일 서울 서대문구 안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꼼수' 막는다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숨은 갱신, 취소·탈퇴 방해 등 차단
소비자기본법·독점규제 개정도 의결**

'다크패턴' 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23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눈속임 상술을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별도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6개 다크패턴 유형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 의무 등이 신설됐다.

6개 다크패턴 항목은 이외에도 △순차 공개 가격 책정 △특정 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이다. 해당 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

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소위는 가맹본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거래조건 강제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위해 개정된다.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 권익증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전자적 시스템 활용 근거 규정 마련,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기준을 8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소위에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체계·지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앞서 이달 초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곳의 웹사이트·모바일 앱

76개를 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개), '감정적 언어 사용'(66개), '구매 시간제한 알림'(57개) 등이었다. 이러한 유형은 심리적으로 구매를 압박하는 유형으로, 소비자원은 '압박형 다크패턴' 수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다크패턴 중 13개 유형을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했다.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옵션 사전선택'이 37개,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가 34개였다. 이 외 '유인 판매'(22개), '거짓 추천'(20개), '거짓 할인'(15개) 등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의 경우 1개 9410원 짜리 보디로션을 '1+1'로 2만6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한국전력의 1차 공급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A사는 각종 사고 위험을 대비하는 신형 검침 관련 제품의 도입이 늦어지면서 신제품 납품이 언제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전의 막대한 적자에 따른 예산 문제의 사각지대에 하청업체의 운명이 놓여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은 수년간 전기요금 동결했다가 최근 들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예산 사용이 수월하지 못해 하청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2면 A사 관계자는 "기존 방식으로 앞으로

한전 '2兆 흑자'에도 웃지 못하는 하청업체

있을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쉽지 않다"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도입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한전의 예산 문제가 이유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전의 재무 상황은 하청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한전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24조4700억 원, 영업이익 1조9966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상반기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효과가 수개

전기요금 인상에 실적 회복 불구
한전 4분기 손실 전망에 '속앓이'

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한전 수익 구조 악화에 직격탄이 되는 고유가·고환율 환경으로 인해 4분기에는 다시 6000억 원대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건 한전 관련 공급사들의 실적도 좋지 못하다는 애

기다. 소폭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실적이 반등한 업체가 있을 만큼 하청업체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해까지 한전의 전기요금 동결로 적자를 계속하던 전력 관련 제품 납품사인 B사는 전기요금 인상 이후 숨통이 트였다. B사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개선된 전력 관련 제품을 공급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이 지난해 200억 원대에서 올해 345억 원으로 꺾중 뛰었다. 영업이익도 20억 원이 넘는 적자에서 10억

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B사 관계자는 "지난해 한전 예산이 없어서 재고 판매를 못 했는데 연초 정상화되면서 매출로 이어졌다"며 "전기요금을 못 올리면서 매출 행위를 못했었는데 전기요금이 정상화되면 연간 흑자도 나올 수 있게 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전 재무구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0.6원을 인상한 산업용에 이어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우람 기자 hura@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우리도 중소기업인데”... 적자 쌓여도 말 못하는 한전 하청업체

대내외 악재... 수년간 요금동결 서민·대기업·중기 혜택 받았지만 1·2차 공급사, 고사위기 내몰려

수년간 이어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주요 소비층인 시민들과 기업들은 혜택을 받았지만, 한국전력 1·2차 공급사들은 수난의 시간이었다. 동결의 사각지대에서 매출 하락과 신기술 개발 지연 등을 겪은 것이다. 반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대부분 중소기업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동결이든 인상이든 난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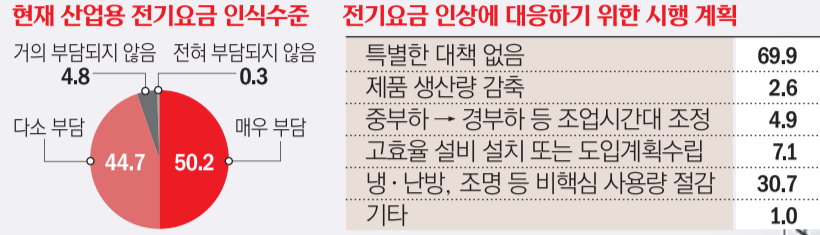
◇전기요금 동결에도 말 못하는 벤더= 원정인한전의 적자가 쌓이면서 하청업체들의 사업엔 그늘이 쌓였다. 그도 그럴 것이 손실 폭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예산 사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서다.

전기요금은 정부와 정치권, 시민 여론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 아래도

한전적자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사례

- #1. 1차 공급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A업체: 신기술 개발 후 납품시기 지연으로 계속 투자 어려움
- #2. 전력 관련 제품 공급하는 B업체: 지난해 영업이익도 20억원이 넘는 적자

에너지 비용 증가가 중소기업에 끼치는 영향 인식 조사 (단위: %, 309개 기업 대상)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시행 계획

특별한 대책 없음	69.9
제품 생산량 감축	2.6
중부하 → 경부하 등 작업시간대 조정	4.9
고효율 설비 설치 또는 도입계획수립	7.1
냉·난방, 조명 등 비핵심 사용량 절감	30.7
기타	1.0

*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 올해 3분기 기준 한전 누적 영업손실: 44조9549억원

급 업체들로서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자칫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기업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정상화돼 한전의 적자가 완화되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그러나 향후 한전의 실적 회복은 긴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8조 4000억 원에 달한다. 3분기 1조9966억 원대 흑자를 냈지만 올해 연간으로는 7조 5000억 원대 적자를 추가로 내게 된다. 하청업체들은 한전 실적이 추세적으로 정

상화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인상 땀 중기 부담 가중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 전기료는 작년 기준 메가와트시(MWh)당 106.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96.1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MWh당 95.3달러로 OECD 평균(144.7달러)보다 싼 축에 속한다. 애초 전기료가 워낙 싼 인상 폭도 다른 나라에 비해 미미했기 때문이다. 값싼 전기요금의 대가는 한전의 손실로 지탱됐다. 누적된 한전의 영업손실

은 46조9516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위기감이 커데도,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전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2월 공개한 309개 중소제조기업 대상의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 된다는 응답이 94.9%에 달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중소제조기업이 상승한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우 부담'으로 응답한 기업도 50.2%로

한전 상반기 손실만 8.4조 달해 무역마찰 등 인상요구 커지는데 대다수 반대 부딪히며 사면초가

절반이나 됐다.

◇자유무역 보조금 인식도 문제 = 한전과 하청업체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일반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까지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용 전기요금 혜택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역 대고 전기요금을 지원하면 무역 마찰을 불러올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부담되는 비용을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한창용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영향을 분석했을 때 전체로서는 영향은 없으나 일부 업종들이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전기요금을 분할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며 "장기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공정혁신과 전기를 덜 쓰는 방향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우람 기자 hura@

“美 ‘포스코 과세’는 이례적... 전기료 인상 빌미 안돼”

(산업용)

상계관세 고려할 때 미미한 수준 한전 산업용 올려 적자해소 못해 '중기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촉구

미국이 철강 외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빌미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이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

로 고려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무역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국의 대미 수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기요금 이슈가 상계관세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며 “다른 업종으로 번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상계관세는 한국의 전체 수출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 기업, 해당 수출 품목별로 부과된다. 한국이 미국에 수

출하는 액수 대비 실제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비중이 작은 데다, ‘전기요금’으로 인한 부분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 아무리 싼 전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철강기업들에 관한 사례만 들어 전체 기업, 품목에 대해 ‘모든 한국산 수출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수출됐다’고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철강 업종도 기본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긴 하지만 기업마다 전기료와 고로

비중이 달라 이번 사건으로 받는 영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특히 미국 법원은 국내 전기요금과 관련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들도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강행덕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은 “대기업이 주로 쓴다고 알려졌지만 ‘산업용’의 ‘고압 A’는 중소 제조업이 많이 쓴다”며 “업종, 기업별로 다르지만, 원가의 15~30%를 전기요금이 차지하는데 이번

인상분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어려워 중소기업이 주 고객인 ‘산업용 갑’도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강 실장은 “납품대금연동제에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이 상승했을 때도 대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폐지나 완화,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학생

교사

학부모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 학교

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남길 수 있어요



정보제공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 및 다양한 교육 정보를 알려드려요



상호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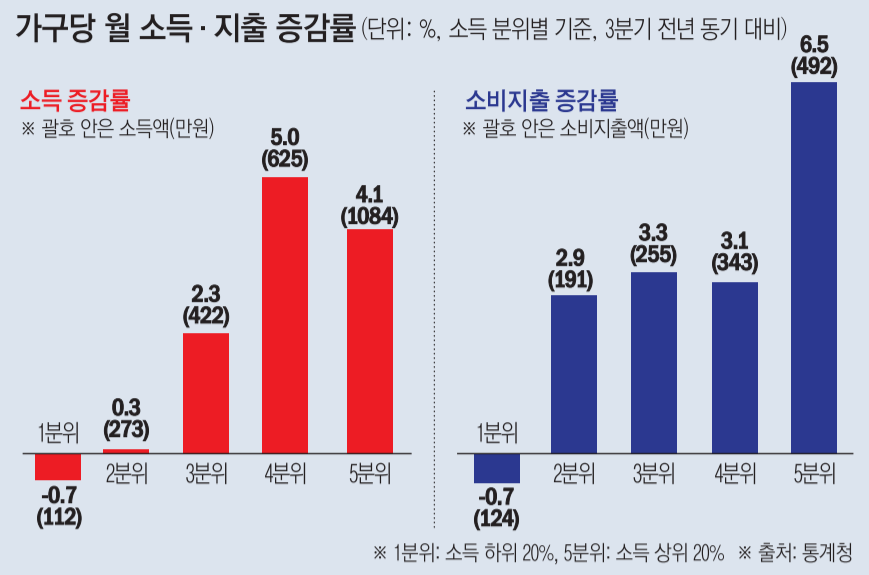
고민을 서로 나누고 정책에 대해 소통할 수 있어요




togetherschool.go.kr


〈소득 하위 20%〉

저소득가구만 소득 줄어 月 33만원 적자... 빛내서 살았다



3분기도 '빈익빈 부익부'

고물가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크게 늘 때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줄어들어 이들 가구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만 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00원(0.7%) 줄었다. 나머지 가구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 소득이 늘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가구만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이들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임시·일용직 감소 등에 따른 근로소득(-9.2%), 집중호우로 농사소득 등의 사업소득(-12.7%)이 크게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들이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직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의미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2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0.7% 줄었다. 씬 씬이를 줄였음에도 소비지출 금액이 월평균 소득보다 많아 빛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2분위(190만 9000원), 3분

일용직 줄고 집중호우 피해 늘어 저소득 1분위 가구 부채 또 쌓여 월 112만원 벌어 124만원 소비 고유가·고물가 연말이 더 걱정

위(254만 7000원), 4분위 가구(342만 6000원)는 각각 2.9%, 3.3%, 3.1% 늘었고, 5분위 가구(492만 2000원)는 6.5% 증가했다.

소비지출 비중을 보면 1분위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23.0%), 주거·수도·광열(17.5%), 음식·숙박(12.8%)을 중심으로 의식주에 대한 지출을 많이 했다. 5분위 가구 경우 국내외 여행 증가 등으로 음식·숙박(15.5%), 교육(13.7), 교통(12.7%) 중심으로 지출이 많았다. 1분위 가구 가계 적자액은 월평균 33만 원을 기록했다. 2분위(35만 원), 3분위(87만 6000원), 4분위(151만 6000원), 5분위(339만 7000원) 가구는 흑자를 냈다. 가계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에서 각종 소비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문제는 4분기 중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고물가 기조가 확대되면서 먹거리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8% 상승해 3개월 연속 오름 폭이 확대됐다. 지난달 상승률은 올해 3월(4.2%)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지출 목적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6.7%), 음식·숙박(4.7%), 주택·수도·전기·연료(2.8%), 의류·신발(8.1%) 등에서 물가가 크게 상승했다.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감소는 전반적인 소비 위축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3분기 전체 가구의 실질 소득이 전년 대비 1만 원(0.2%)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올해 9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2% 늘었지만, 고금리 기조로 승용차(-0.9%) 등 상품 소비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통화긴축 기조로 인한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과 중동 정세 불안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이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학자금·車담보대출 연체 카드빚에 美 소비 빨간불

美 카드빚 1404조원 사상 최대 기업 60% 연말 실적 악화 전망

미국인들의 빚은 늘고 실질소득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 주요 기업들은 3분기 실적 호조를 보였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은 오히려 커졌다.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S&P500 기업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 늘어나 4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직전 분기의 경우 5% 감소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알파벳, 아마존, 메타, 애플 등 빅테크 기업 순이익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4분기 전망을 밝힌 90여개 기업 가운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30%에 불과했다. 반면 악화할 것으로 내다본 기업은 60%에 달했다.

가장 큰 우려는 경제를 지탱하는 개인소비다. 곳곳에서 주춤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거쳐 쌓아놓은 부채가 이제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미국

신용카드 부채 규모는 전 분기 대비 4.6% 증가한 1조 8000억 달러(약 1404조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0일 이상 카드대금을 치르지 못한 신규 연체율도 이 기간 8.01%를 기록해 12년 만에 최고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한 여파가 컸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우대금리가 올랐고 신용카드 금리도 뒤따랐다고 CNBC방송은 짚었다.

이동훈 뉴욕 연은 이코노미스트는 "신용카드 연체율의 지속적인 상승은 지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자동차대출이나 학자금대출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담보대출(오토론) 연체율도 9월 6.11%까지 올라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저축과 소득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9월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의 3.4%만 저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의 4%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 약 7%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연방정부 지원금 등에 힘입어 2조 달러에 달했던 초과저축은 올해 상반기 1900억 달러로 대폭 축소됐다. 이 밖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미국인 실질 세후 소득은 3분기에 1% 감소했다.

고대명 기자 kodae0@

2024 한글과컴퓨터 비즈니스 파트너 모집

한컴오피스와 더불어 한컴의 미래 사업을 함께 이끌어 나갈
비즈니스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신청 접수 2023.11.20(월) ~ 2023.12.01(금)

선정 공지 2023.12.26(화) * 선정 기업 개별 통보,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모집 대상

구 분	모집대상	비 고
컨트롤러	시장별 0개사	공공·교육·엔터프라이즈·SMB
BP 파트너	시장별 00개사	공공·교육·엔터프라이즈·SMB
VP 파트너	시장별 00개사	컨슈머·COEM·FPP

접수 방법 홈페이지 내 '비즈니스 파트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접수

문의·접수 partner@hancom.com

* 상세 내용 : 홈페이지(www.hancom.com) 참고

정부 바우처, CBDC로 발행... 10만명이 먼저 써본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

한은-금융당국, 로드맵 발표

내년 '활용성 테스트' 세부 계획
석달간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비용절감·절차 간소화 등 확인
탄소배출권 거래 등도 우선 실시



김동섭(가운데)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이 23일 열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활용사례 및 세부 계획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일반 국민(최대 10만 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에 나선다. 내년에 참여 금융회사, 일반인 모집 등을 거쳐 3개월간 실시한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공동 설명회에서 CBDC 테스트 활용 사례 및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테스트 분야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 가상으로 기술을 구현하는 '가상환경 기술 실험' 등 두 가지다.

일반인이 참여하는 테스트는 내년 9월 말 이전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일반인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인터넷은행을 포함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은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 신청 자격, 모집 방법(선

착순 또는 추첨) 등은 미정이다. 어떤 테스트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모집방법과 대상이 달라진다.

이번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으로 진행된다. CBDC 기반 예금도 큰 프로그램 기능을 활용해 공격 목적의 바우처 기능 활용 방안을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순서는 먼저 발행 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1형 통화)을 발행한다. 이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사용자에서 물품 등을 구매(유통)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앞 대금이 지급되는(지급) 단계로 구성된다.

싱가포르통화정(MAS)에서 한은에 제시한 디지털 바우처 사례는 △코로나 19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친환경 전열기성금액 지급 등이다. MAS에서 제시한 사례 중에서 테스트 유형을 선정할지, 그 외 새로운 아이템으로 진행할지 역시 정하지 않았다.

한은과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최종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 제고보다 운용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동섭 한은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제반 금융 수수료 절감, 정산(지급) 절차 간소화,

사후 검증 소요 인력·예산 절감 및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화폐를 이용했을 때와 비교해 비용이 얼마나 절감될지는 테스트 종료 이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의 탄소배출권 시장 관련 분산원장 기술 모의실험과 연계해 유통실험도 실시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중앙은행과 거래소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했다. 거래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의 시스템

내에서 Ⅲ형 통화를 이용한 탄소배출권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지에 대한 개념검증(PoC)을 실시하는 것이다. 기술 실험에서 외부 연계 시스템상 금융기관, 발행기관은 가상의 기관들을 상정해 진행하고 실제 금융기관들이 시스템 노드로 참여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 상품을 고객 대상 청약 형태로 발행할 경우 결제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테스트도 한다.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크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개념검증(PoC)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1형 통화)을 처분 제한(lock) 조치한 후 최종 물량 배정 후 토크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이체가 이뤄지고 잔여 금액에 대한 처분 제한을 해지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할 계획이다. 해당 기술 실험에서 청약 주관사, 납입은행 등은 가상의 기관들을 상정해 진행된다. 토크화된 증권은 기관용 CBDC를 통해 결제하는 실험도 준비한다. 한은은 CBDC 시스템상에서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고, 금융기관은 기관용 CBDC를 이용해 낙찰받은 증권의 거래와 결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개념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해외 혁신모델로 카카오 키우려다 문제 발생”

김범수-준신위 첫 회동

분식회계·시세조종 의혹 터지자
김 센터장 외부 감시기구에 SOS
카카오 쇄신 위한 준법경영 논의
김소영 위원장 “신속활동 추진”에
“독립운영 존중... 적극 지원” 화답



김범수(왼쪽) 카카오 경영혁신위원장이 23일 김소영(오른쪽)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기 위원들을 만나 카카오의 쇄신을 위한 준법 경영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제공 카카오

“실리콘밸리 혁신 모델에 쫓겨 그대로 카카오의 혁신 모델을 잡았다. 그러나 성장할 때 문제가 생길 줄 몰랐고,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한국에서 그 모델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김범수 경영혁신위원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23일 카카오 관계사가 입주한 서울 대치동 EG빌딩에서 열린 경영혁신을 위한 외부 독립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준신위는 이날 킵오프 형식의 첫 회동을 가졌다. 15일 위원 명단이 확정된 이후 약 일주일 만이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잇따르자, 카카오가 내부 논의를 넘어 강력한 외부 기구의 감시를 받기로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에 단순한 자문이 아닌 직접 조사 실시권 등 강력한 통제권과 제재권을 부여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카카오의 쇄신을 위한 준법 경영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

펴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방침, 향후 계획 등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다음 1차 회의부터는 사업별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카카오 계열사의 사업별 임원 등을 위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해 사업별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 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빠른 시일 내 공식적인 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날 만남에는 김범수 위원장과 김소영 위원장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장(프리젠티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 회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화상회의 참석)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은 서울신문 전

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총괄 등 준신위 위원이 참석해 향후 일정 및 운영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김소영 위원장은 “카카오 관계사들이 준법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해당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라며 “연말까지 위원회가 선정한 어젠다에 대해 논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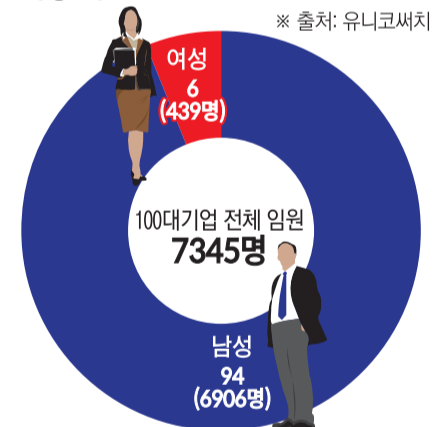
김범수 위원장은 “카카오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속도를 중요시하며 빠른 성장을 추구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미흡했던 것 같아 아쉽다”며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존중하며, 전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테니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100대 기업 女임원 첫 6%대 진입 이재용, 유리천장 가장 많이 깬다

올해 女임원 보유기업 72곳 중
삼성, 7명 늘며 72명으로 최다
CJ제일제당·네이버·현대차 順

2023년 100대 기업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율 (단위: %, 반기 보고서 기준)
※ 출처: 유니코써치



국내 100대 기업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6%대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는 매출액 상위 100개 기업의 올해 반기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 내 여성 임원은 작년보다 36명(8.9%) 증가한 439명으로 전체(7345명)의 6.0%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원은 사내이사와 미등기임원을 모두 포함한 기준이고, 사외이사는 조사에서 제외했다. 반기 보고서 제출 이후 임원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여성 임원의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됐지만, 전체 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0대 기업 내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율은 2019년 3.5%에서 2020년 4.1%, 2021년 4.8%였다가, 작년엔 5.6%로 높아졌다.

여성 임원 숫자는 2004년 13명에 불과했다. 이후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 2013년 처음으로 100명 시대를 열었다. 현재 추세라면 2025년 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00대 기업 중 여성 임원을 둔 곳은 올해 72곳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기술(IT) 분야는 172명으로 전체 여성 임원의 39.2%로 가장 많았다. 조선·해운·철강·에너지·기계 등 업종에서는 여성 임원이 없는 기업이 많았다. 출생 연도별로는 1970년대 초반

(1970~1973년) 출생자가 157명(35.8%)으로 가장 많았고 1974~1976년생이 114명(26%), 1977~1979년생이 67명(15.3%)으로 뒤를 이었다. 단일 출생 연도 기준으로는 1971년생이 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100대 기업 중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작년보다 7명 늘어난 72명이었다. 이어 CJ제일제당(30명), 네이버(26명), 현대자동차(21명), 롯데쇼핑(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 임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비율이 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CJ제일제당(23.6%), 네이버(19.8%), 롯데쇼핑(16.5%) 순이었다.

여성 임원 중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하는 사내이사는 8명이었으며, 대표이사 직함까지 보유한 여성 임원은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1956년생), LG생활건강 이정애 사장(1963년생),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1970년생), 네이버 최수연 대표(1981년생) 등 모두 4명이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권익위, 건보료 체납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사항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 7000여 건을 넘어섰다.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3만 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기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는 64만 8478세대로 집계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의료급여 등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자녀(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주거·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로 폐지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체납 건보료 분할납부 ‘48회 이내’로 ‘6회 체납 시 급여제한’도 폐지 권고

애인을 제외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다.

아울러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 관행도 개선을 권고했다. 압류예정 통보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돼 본인도 모른 채 ‘압류금지 소액예금 통장’이 압류돼 경제활동이 불가능했던 사례들을 고려한 것이다. 권익위는 저소득·취약계층에 한해 압류 전 휴대전화 번호 확인을 통해 체납자의 압류처분 분리·분할 납부 사항 등에 대해서 전화통화나 문자 전송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보험료가 6회 체납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병·의원 진료비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여제한’ 근거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저소득층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분할납부 횟수를 48회 이내로 완화하고, 분할납부 승인 취소자의 재승인 기준도 완화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분할보험료조차 납부하기 어려워 체납할 수밖에 없었던 민원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납부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취지다. 아

울러 저소득층·취약계층에 한해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체납 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지역가입자의 ‘연대납부 면제 대상’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대납부의무면제대상인 미성년자의 소득, 재산 등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8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확대는 중장기 방안으로 권고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정보인 자격 변동, 자동이체 직권 해지 사실 등에 대해서 휴대전화 문자 전송,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양향자 대표 만난 인요한 혁신위원장

인요한(왼쪽)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양향자 한국희망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尹, 파리로... 이제 ‘엑스포 유치’ 총력전

3박4일 영국인 방문 마무리 ‘다우닝가 합의’ 등 경험 성과 파리서 BIE회원국 대표 접견



정사진과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정치적 합의이자 전략문서”라며 “국방·안보, 산업,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양국 협력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영국 국민 일정을 마치고 프랑스 파리로 외교 무대를 옮겼다.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 첫 국민 방문 자격으로 영국을 찾았던 윤 대통령은 정상 간 ‘다우닝가 합의’ 채택, 양국 관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의 성과를 남겼다.

이번 국민 방문을 통해 양국은 국방·안보, 경제, 첨단 과학기술, 지속가능 개발,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포괄적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다우닝가 합의’ 채택에 대해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질로 개발 협력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처칠 전쟁박물관에 방문한 뒤 찰스 3세 국왕과의 작별인사를 끝으로 프랑스 파리로 향했다. 파리에서는 각국의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접견 등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에 전념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양향자 “국힘과 합당? 합당치 않다... 연대는 가능”

與혁신위 초청강연서 밝혀

양향자 한국희망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합당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연대는 열려있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양 대표는 23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 성과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협업하거나 합

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 질문은 과거에 어떤 실패의 인식 속에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출발했다. 가치와 비전을 두고 창당한 상황에서 합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는 어떤 세력과도 토론할 수 있고 정책적 연대에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항상 그리워하던 고향이 도착했습니다!

고향의 맛, 고향의 그리움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마음을 전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가정에서 받아보세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득을 제외한 원하는 지지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담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농축산물 담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 담례품 지급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에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 농축협
* 기부 한도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불가)

<2045년>

메탄 배출량 30% 줄이고 공공부문 탄소중립 달성

2030 메탄 감축 로드맵

메탄 온실효과 CO₂의 28배 달해 디지털, 저전력화로 탄소 감축 청정메탄을 신산업으로 키우고 전기·수소차 의무구매평가 강화

온실효과가이산화탄소의 28배에달하는 메탄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이상 감축한다.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7% 줄이고 2045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또 디지털 부문 저전력화로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등 그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청정메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3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메탄 감축 로드맵’과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 방안’ 등을 의결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방안’ 및 ‘청정메탄을 신산업 창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탄녹위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국제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740만톤CO₂e(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메탄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28배에 달해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집중적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농업·폐기물·에너지 등 메탄 다(多) 배출 부문을 대상으로 감축 신기술 및 정책을 추진하고, 보조 감축 수단으로 국제감축 실적

확보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인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의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 감축하고 2045년까지 공공 건물·차량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이다. 그린 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기존·신축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통합·지능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최적화한다. 또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희공간 활용 및 민간 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생산·활용을 확대한다.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의무 구매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대한다. 탄소중립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소유·통제하고 있는 범위 외에 공급망·운송·제품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인 스코프3(Scope3) 영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정부는 업무평가 등의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면서 기관별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화, 탄소 배출량의 추적·관찰 등 탄소 감축의 핵심 역량인 디지털 기술을 산업과 일상에 적용,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과 일상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린 디지털 전환을 도입·확산한다. 또한, 시장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이 자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자체·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등 초기 수요·시장을 형성한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위스키 수입 역대 최대 위스키에 탄산수 등을 넣은 ‘하이볼’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위스키 수입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3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스카치·버번·라이 등 위스키류 수입량은 2만6937톤(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8% 늘었다. 역대 연간 최대치인 2002년(2만7379t) 수준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위스키 수입량은 2021년 1만5662t에서 지난해 2만7038t으로 72.6% 급증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위스키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장비용 19만1030원... 작년보다 2만5330원 ↓

정부 김장 수급대책 추진으로 배추·무 등 재료 가격 안정화

올해 김장비용(20포기 기준)이 3차 조사에서 19만1030원까지 떨어졌다. 1차(6일) 조사에서는 21만8425원, 2차(13일) 조사 19만3106원에서 더 떨어진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정부 김장 수급대책 추진으로 배추 등 김장재료의 주요 가격이 큰 폭 하락했다. aT가 김장 기간에 3번째로 조사(20일)해 이날 발표한 김장비용은 19만1030원으로 지난해 11월 중순(21만6358원) 대비 2만5328원(11.7%) 낮아졌다.

김장재료는 배추 20포기 기준으로 무 5개, 고춧가루 2kg, 마늘 1.3kg, 대파 0.7kg, 쪽파 0.7kg, 양파 0.8kg, 생강 0.3kg, 갓 1.4kg, 미나리 0.4kg, 배 1.8kg, 굵은소

금 6kg, 새우젓 0.8kg, 멸치액젓 1.2kg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배추는 20일 기준 1포기 소매가격이 2602원으로 전년 대비 14.3% 낮고 무도 같은 기간 1개 소매가격이 1448원으로 40.9%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장재료에는 안 들어가지만 김장에도 쓰이는 사과와 생선도 감소로 도·소매가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할인지원 및 비정형과할인공급 등의 수급대책으로 소매가격은 경락가격 대비 상승폭이 축소했다. 사과 10kg 경락 가격은 5만4237원으로 전년 대비 86.6% 높은 수준이나 10개 소매가격은 2만6952원으로 전년 대비 22% 상

승에 그쳤다.

정부는 계약재배 물량 1만5000톤 조기 출하 및 비정형·소형과 1500톤을 연말까지 시장에 출하해 물가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3사는 24·26일 비정형·소형과 7만9000봉지에 대해 정상과 50% 수준으로 특판 행사에 나선다.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김장재료 및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방안 이후 주요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홍 차관보는 “최근 농산물 가격이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모든 부처가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겠다”며 “현장 방문·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신속한 현장애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농산물 유통도 ‘온라인 시대’

‘온라인도매시장’ 30일 개설

농가 수수료 ↓ 소비자 가격 낮춰 2027년까지 거래비중 20% 목표

농산물 유통에도 디지털 기반의 혁신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 과일과 채소의 50% 이상을 처리하는 도매시장이 온라인으로 구축돼 유통비용은 줄이고 농가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전국의 다양한 농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도매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한다. 2027년까지 전체 도매거래 비중의 20%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유통 단계의 감소다. 출하자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을 거쳐 구매자에게 가는 기존 오프라인 시장의 4단계 과정이 2~3단계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산지에서 도매법인을 거쳐 소비자로 가거나 도매법인 대

신 중도매인을 거쳐 바로 소비자에게 연결되는 방식이다.

유통비용도 줄어든다.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물건이 모인 뒤 거래가 되는 반면 온라인 시장에서는 물건이 모이는 단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생산자인 농가는 온라인을 통해 보다 다양한 출하처를 확보하고, 예약과 발주거래 등으로 다양한 거래방식을 취할 수 있어 보다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역시 이 같은 비용 감소에 따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시장 대비 저렴한 거래 수수료도 이점이다. 기존 수수료는 시장사용료의 0.5%(가락시장 0.55%)였지만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사용료는 0.3%다. 정산수수료도 기존 0.4%에서 0.2%로, 위탁수수료도 최대 7%(청과)에서 5%로 인하된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온라인도매시장은 무한경쟁이 가능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유통 비용 절감에 따라 소비자들은 농산물을 보다 싸게 살 수 있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천식·기관지염 치료제 보험약가 인상... 공급 확대 조건

복지부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6개 품목 퇴장방지의약품 지정도

기관지염 등 치료제인 미분화부데소나이드 성분 흡입제 보험약가가 공급 확대를 조건으로 인상된다. 해당 약품은 유·소아에 대해 대체 약제가 없는 필수약품이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필수약품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안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했던 미분화부데소나이드 성분

흡입제 풀미칸(건일제약), 풀미코트레스플(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보험약가 상한액을 각각 946원에서 1121원으로, 1000원에서 1125원으로 인상한다. 해당 약품은 기관지천식, 유·소아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된다. 특히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한 대체 약제가 없다. 복지부는 약가를 인상하되, 향후 13개월간 최소 2600만 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월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수치다.

아울러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6개 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수입을 꺼리는 약제다. 신규 지정 품목은 항생제인 보령나프실

린나트롬주(보령), 미량 원소제인 후루트만주(제이더블유중외제약) 등이다.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에선 스테로이드제인 텍사하이정4밀리그램(대웅제약), 기초수액제인 제일포도당주사액(제일제약) 등 6개 품목의 상한액을 인상한다. 도스탈리담 성분의 진정성·전이성 자가내막암 치료제인 켈퍼리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와 사트랄리주맙 성분의 시신경적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엔스프링 프리필드시린지주(한국로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이중급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함께하는 현대자동차 2023 EV 세일페스타

전기차는 올해가 타이밍



현대자동차 EV 세일페스타 11월 구매 혜택

대상 차종/혜택 아이오닉 5 & 아이오닉 6 최대 1,440만 원, 코나 일렉트릭 최대 1,220만 원 상당의 혜택 (국비 보조금 포함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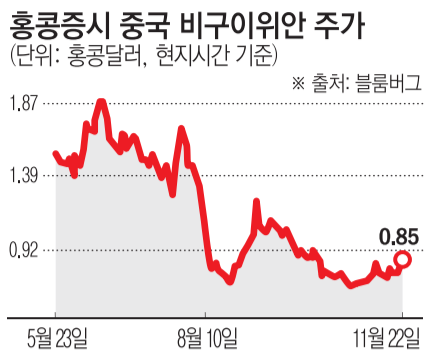
■ 구입 문의 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활용 서비스 080-600-6000 ■ 차종별 구매 혜택: 아이오닉 5 최대 520만 원 할인 + 최대 160만 원 증진 크레딧 + 국비 보조금 760만 원, 아이오닉 6 최대 520만 원 할인 + 최대 160만 원 증진 크레딧 + 국비 보조금 760만 원, 코나 일렉트릭 최대 320만 원 할인 + 최대 160만 원 증진 크레딧 제공 + 국비 보조금 740만 원 ※ 단 아이오닉 5 N 제외, 아이오닉 5 영업용 별도 문의 필요 ※ 증진 크레딧: 전기차 충전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EV 세일페스타 최대 증진 혜택: ① 80만 크레딧(기본 제공) + ② 40만 크레딧(현대자동차 전용카드 프로모션) + ③ 40만 크레딧(신차 할부/임대 프로모션) ※ ③ 80만 크레딧(기본 제공): 출고 후 블루핸즈 및 마이현대 회원가입 후 'EV 세일페스타 증진 크레딧' 신청 시 제공, ④ 40만 크레딧(현대자동차 전용카드 프로모션): 현대차 전용카드 500만 원 이상 결제 + 세이브 오토 이용 시 제공, ⑤ 40만 크레딧(신차 할부/임대 프로모션): 현대캐피탈 할부/렌트/리스 이용 시 제공(할부 500만 원 이상 + 6개월 이상 이용 시) ※ 출고 후 익월 말일까지 SK일렉트릭 충전카드 신청 필요(미신청 시 증진 크레딧 제공 불가) ■ 인기 차종별 정부 공인 표준연비는 해당월의 가격표, 카탈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프로모션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최대 할인 금액은 한정 재고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 재고 소진 시 할인 금액 변동 가능 ▲ 아이오닉 5 기본형인 320만 + 생산할 조건 최대 200만 원 ▲ 아이오닉 6 기본형인 320만 + 생산할 조건 최대 200만 원 ▲ 코나 일렉트릭 기본형인 220만 + 생산할 조건 최대 100만 원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미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빠른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 서비스는 bluehands가 책임집니다
회원예약, 블루핸즈케어서비스(긴급출동/물류포인팅/안전서비스)

부동산 불끄는 中 ‘그림자은행’ 휘청

비구이위안 등 부동산 50개사
금융지원 ‘화이트리스트’ 올라

中 금융권선 비은행 부실 확대
증즈 그룹 부채, 자산 2배 훌쩍



중국 정부가 자금 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조달 지원에 나섰지만, 그림자금융이 새로운 경제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어려움에 빠진 부동산 업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할 부동산 기업 ‘화이트리스트’ 목록 초안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총 50개사가 이름을 올렸는데 잇따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내며 무너져가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위안(영문명 컨트리가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중국 규제 당국은 향후 며칠 내에 명단을 확정해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다만 일부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 부동산 기업이 어떠한 금융지원책을 받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시장에

서는 이들 회사가 신용 대출과 채권 및 지분 융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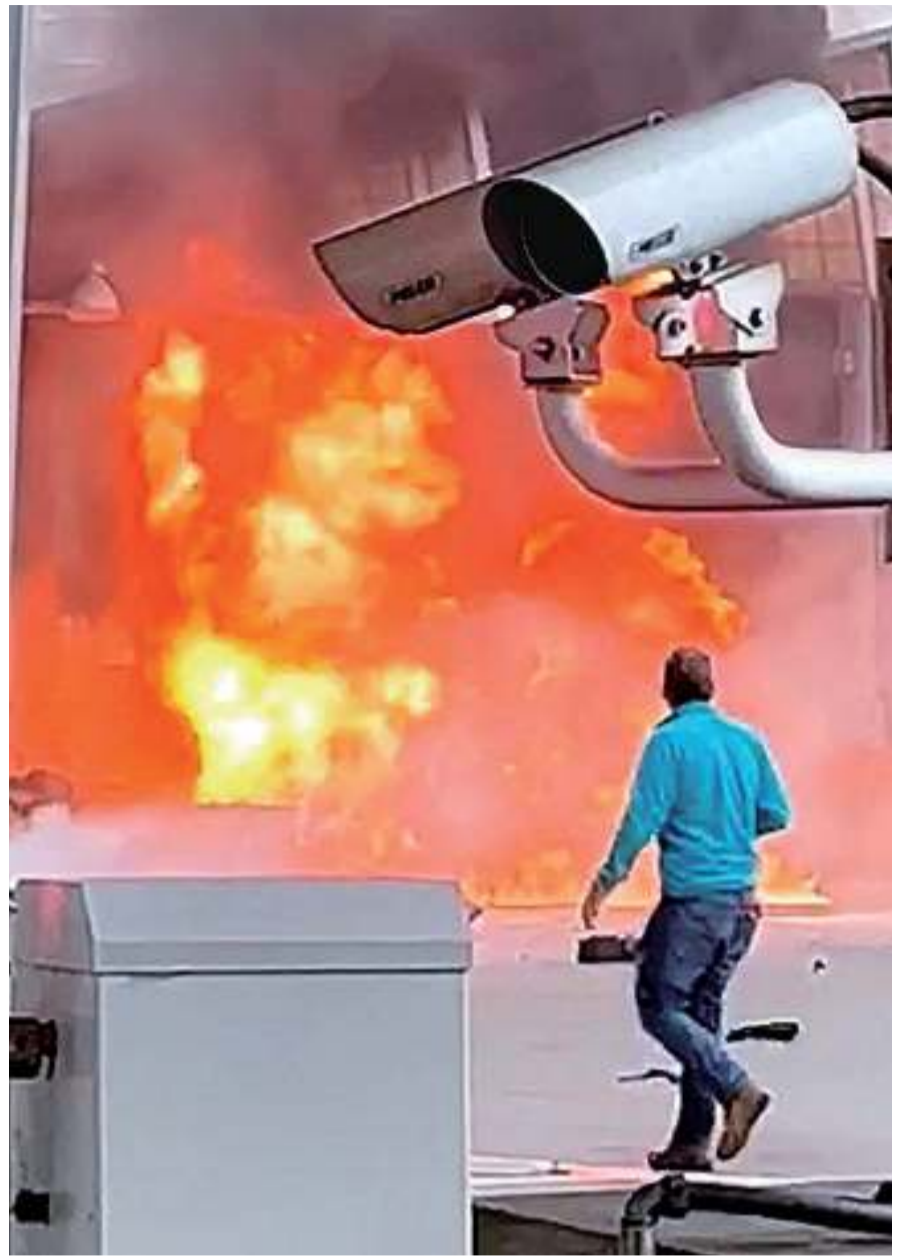
화이트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위기를 겪는 부동산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전환했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 당국은 과거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영문명 에버그란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직접 나서서 것을 꺼렸다. 헝다는 디폴트에 빠진 뒤 수년간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올해 8월 미국 뉴욕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추가 국제 발행과 재정적자 상환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부동산 부문에 대해서도 손을 내밀고 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지난달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도 감지됐다. 이날 전인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들은 “새로운 디폴트 위험을 줄이고 주택건설계획을 확실하게 완료하기 위해 은행들이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금 공급 확대는 경기에 대한 가계 불안감을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부동산 위기의 불이 채 꺼지기도 전에 그림자은행(비은행 금융권) 부실화라는 새로운 위기가 중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중국 최대 규모의 그림자은행 중 한 곳이 부채가 자산의 두 배를 넘어서는 ‘심각한 부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그림자은행 부실 위험 억제라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

중국 대형 자산운용사인 증즈엔터프라이즈그룹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전 실사 결과 그룹이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에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왔으며, 회사가 단기적으로 부채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증즈그룹은 자산이 2000억 위안(약 36조3320억 원)인 데 비해 부채는 4200억~4600억 위안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동성이 고갈돼 자산처분으로 인한 회수가 능력도 낮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효선 기자 hsbyun@



美 북부 국경 검문소 차량 폭발 미국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레인보우 다리에 있는 국경 검문소에서 22일(현지시간)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후 폭발해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다. 이번 사고로 탑승자 2명이 사망하고 미국 관리 1명이 다쳤다. 추수감사절 전날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해 테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미 연방수사국(FBI)은 “현장에서 폭발물이나 기타 테러 관련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테러가 아닌 운전자의 난폭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라고 분석했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美서도 시크교도 암살 시도... 인도에 우려 제기

인도 분리주의자 극단 처분 잇따라
백악관, 모디 정부 책임자 추궁 요구

서구권이 시크교 분리주의자들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응하려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미국에서 인도로부터의 독립운동에 관련된 시크교 분리주의자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인도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고, 살해 계획에 가담한 인물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다.

암살 음모의 표적이 된 인물은 ‘시크 포

저스티스’라는 단체의 법률 고문이자,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자인 쿠르피완 싱 파는 이다. 그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시크교 분리주의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방 국가에서 시크교 독립국 수립을 위한 국민투표 운동을 조직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에이드리언 왓슨 NSC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며 “고위급 수준을 포함해 인도 정부에 관련된 우려를 제기했으며, 책임 있는 자가 누구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 정부 당국자는 놀라움과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러한 성격의 활동은 인도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서방 국가에서 시크교 분리주의자가 주변에 위협을 받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

니다. 6월에도 캐나다에서 캐나다 국적의 시크교 분리주의 운동단체 지도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이 사건은 캐나다와 인도의 외교 관계가 악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캐나다가 해당 사건의 배후에 인도 정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당시 현지 언론들은 캐나다 정부가 이미 이번 사건에 개입한 인도 정부 당국자와 주 캐나다 대사관 소속 외교관 등의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국가라는 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시크교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비판을 피하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byun@

산업용 희귀금속도 ‘탈러시아’

배기가스 감축 촉매제 팔라듐
러시아산 대신 백금으로 대체
니켈, 인도네시아서 생산 늘려

산업용 금속 부문에서도 탈러시아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팔라듐과 니켈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생산 점유율이 높은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차질 우려로 금속 가격이 잠시 급등했지만 타국산이나 대체재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금속시장이 진정될 조짐을 보인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 촉매제로 쓰이는 팔라듐 가격은 최근 5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물 팔라듐 선물 가격은 13일 한때 트로이온스(약 31.1g)당 948.5달러(약 123만 원)까지 하락했다. 연초 대비 하락률은 40%에 달했다.

팔라듐 가격 하락 배경에는 공급 우려의 후퇴가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까지 전 세계 팔라듐 공급량의 약 40%를 차지했다. 전쟁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로 팔라듐 가격은 한때 2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지만, 수요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른 생산국을 찾아 나서거나 대체재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백금이 팔라듐의 새로운 대체재로 떠올랐다. 팔라듐 수요의 80%는 내

연차 매연을 정화하는 촉매제의 원료다. 지난해 영국의 팔라듐과 백금 시장을 감독하는 단체인 런던플래티늄 & 팔라듐시장(LPPM)이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자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또 다른 배기가스 감축 촉매제인 백금으로 눈을 돌렸다.

니켈 가격도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3개월물 니켈 가격은 20일 톤(t)당 1만6710달러까지 하락해 2021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월 고점 대비로는 50% 하락했다.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니켈 생산이 늘면서 가격을 안정시켰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석 생산량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배 증가했다.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증산으로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가격 경쟁이 치열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저가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보급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금속 무역회사인 한와 흥업의 반노 준이치 이사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 LFP 배터리와 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점유율은 각각 30~40%, 60~70%였지만 현재는 역전된 상태”라며 “LFP 배터리 보급으로 니켈은 수요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아현 기자 cahyun@

네덜란드 총선서도 극우 돌풍

자유당, 출구조사 1위 집계
당대표 빌더스 “이민 억제”

네덜란드 조기 총선에서 반이민·반이슬람·반유럽연합(EU)을 표방하는 극우 성향 자유당이 압승을 거뒀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이날 네덜란드 조기 총선 투표가 종료된 직후 자유당이 하원 총 150석 중 35석을 확보해 압도적 1위라는 출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위 좌파 성향의 녹색당·노동당 연합의 26석과 비교해서도 격차가 크다. 현 연립정부의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은 23석으로 3위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자유당

은 주택난의 원인이 이민자 때문이라며 생활비 상승과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는 유권자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반이민 정서 고조로 유럽 각지에서 부는 ‘극우 돌풍’이 네덜란드 선거에서도 재현됐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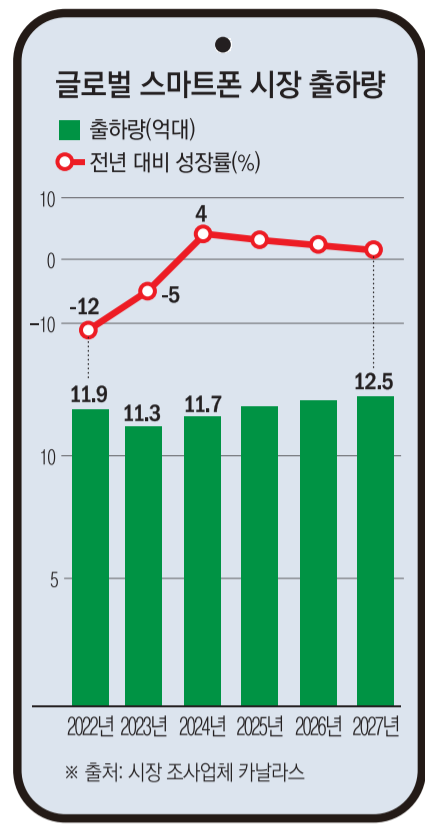
특히 자유당을 이끄는 헤르트 빌더스(60) 대표는 극단적 발언으로 ‘네덜란드판 트럼프’로 불린다. 이슬람교 창시자인 예언자 무함마드를 ‘성도착자’로, 이슬람교를 후진 종교로 폄하하며 이슬람 사원과 경전 코란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EU와 네덜란드 국경 통제, EU 분담금 축소 등을 주장해왔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헤르트 빌더스 자유당 대표가 22일(현지시간) 출구조사에서 자유당 승리를 확인한 후 연설하고 있다. 헤이그(네덜란드)/로이터연합뉴스

빌더스 대표는 이날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지지자들 앞에서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망명 허용을 중단하고 이민은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스마트폰시장 내년 회복”... 조기등판 갤럭시S24 ‘장밋빛’



시장 조사업체 카날리스 전망

침체기를 겪었던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도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성장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더디게 회복되던 중국 시장을 비롯해 신흥국에선 이미 반등이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 S24의 조기 출시 전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23일 시장 조사업체 카날리스는 내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은 전년 대비 4% 성장해 11억70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2027년에는 12억5000만 대를 출하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부터 5년간 예상 연평균 성장률은 2.6%다.

카날리스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2022년 12% 감소한 후 회복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올해 역시 출하량은 여

글로벌 출하량 4% 성장하고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2.6%↑
2027년 12억5000만대 출하

중반등 이어 신흥시장 기대감 출시 앞당긴 갤럭시S24에 긍정적

전히 5% 감소한 11억3000만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지역이 올해 각각 9%, 3%, 2% 성장세로 돌아오면서 하락세는 둔화했다.

카날리스 수석 분석가인 토비 주(Toby Zhu)는 “출하량이 2017년 최고치보다 20% 이상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산업은 가장 암울한 시절에서 분명히 벗어

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로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화려한 새 기능을 추가하면서 평균 판매 가격은 2017년 332달러에서 최근에는 440달러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내년 스마트폰 시장 반등은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카날리스 수석 분석가 산얌 차유라시아(Sanyam Chaurasia)는 “내년 출하되는 스마트폰 3대 중 1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구매될 것”이라며 “이 지역은 또한 인도의 수요 재상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6%라는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진을 이어가던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도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중국 정보통신 연구원(CAICT)에 따르면 9월 스마트폰 출하량은 3192만대로 전년 대비 무려 61% 성장했다. 애플이 221% 급성장했으며, 화웨이 등 로컬 브랜드는 36% 성장하며 올해 5월 수준으로 회복했다. 박형우 SK증권 연구원은 “9월 중국 출하량은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라고 말했다.

출하량이 늘면서 올해 글로벌 월간 판매량에서도 반등이 시작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 월간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월간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조기 출시 전략을 내세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의 내년 성공 가능성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17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의 중심지로 불리는 ‘산호세(세너제이)’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연다. 통상적으로 2월에 갤럭시 S 시리즈를 공개해왔고, 올 초 갤럭시 S23의 경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월 1일에 열렸는데 이보다도 보름 가량 빠른 일정이다. 제품 출시를 앞당기면 시장을 선점해 경쟁사를 견제할 수 있다. 송영록 기자 syr@

LGD ‘구원투수’에 정철동 LG이노텍 사장

23일 이사회서 임명안 의결
6분기 연속 적자탈출 과제로
LG이노텍 CEO엔 문혁수 CSO

LG디스플레이 신임대표이사(CEO)로 정철동 LG이노텍 사장이 선임됐다.

LG디스플레이는 23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정 사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신임 정철동 사장은 12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며, 내년 3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정 신임 사장은 대구대문고,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LG반도체에 입사했다. 이후 40여 년간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이노텍 등 LG의 부품·소재 부문 계열사를 두루 거쳤다. B2B 사업과 IT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갖춘 최고경영자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5년간 LG이노텍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고객의 핵심 니즈 및 미래 방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 문혁수 LG이노텍 신임 CEO

향에 적합한 기술과 제품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창출해왔다. 카메라 모듈 등 글로벌 1등 사업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전장부품, 기관소재 등 미래 성장 사업의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정 사장은 LG디스플레이의 흑자 전환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TV사업 부활에 LG디스플레이는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이번 인사에 대해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OLED 중심의 핵심 사업을 강화하고, 차별화 기술 및 원가-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 창출을 가속화하며 질적 성

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9월부터 LG디스플레이를 이끈 정호영 사장은 이번에 물러난다. 회사 관계자는 “전례 없이 어려운 시장 상황과 경영 환경 아래서도 OLED와 수주형 사업 확대 중심의 사업구조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퇴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석이 된 LG이노텍 CEO에는 최고전략책임자(CSO)인 문혁수 부사장이 선임됐다. 문 부사장은 2009년부터 LG이노텍의 광학솔루션 개발실장,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세계 최초 기술을 적용한 카메라 모듈을 지속 개발해, 광학솔루션 사업을 글로벌 1위로 키우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신규 CEO로 선임된 문 부사장은 개발과 사업, 전략을 두루 거치며 사업가의 길을 걸어왔다”며 “LG이노텍의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과 미래준비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준비된 CEO”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HMM 본입찰, 동원·하림 2개사 참여

LX인터 불참... 입찰가 5兆 예측
최종 입찰 결과는 다음 달 발표

HMM 적격 인수 후보로 지명된 동원·하림·LX인터내셔널 중 동원과 하림만 본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LX인터내셔널은 고민 끝에 본입찰 불참을 결정했다.

23일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공사는 HMM 인수 본입찰에 나섰다. HMM 인수 기업 심사는 9월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됐다. 예비 입찰에서는 3개 업체를 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했다.

산업은행은 인수 후보들이 제출한 입찰서상입찰 금액과 매각예정가격을 비교해 낙찰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매각예정가가 높아 유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외적으로 최근 대폭 오른 HMM의 주가를 기준으로 매각가를 정하

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시세보다 낮춰 파는 경우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이 산업은행의 과거 정책자금 운용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다”며 “예상가보다 헐값에 받더라도 공적 자금 회수를 최우선에 두는 방식은 고려하기 꺼려온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유찰 후 재입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해운업황이 향후 2~3년간 좋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은행 측에서는 시간을 끌수록 HMM의 몸값이 더 내려갈 것을 염려해 예상가보다 낮더라도 지금 파는 게 좋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산업은행이 원하는 매각 금액은 6조~8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후보들이 써낸 가격이 이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예상되는 금액은 5조 원 안팎이다. 본입찰 결과는 빠르면 다음 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삼성, 북미영상의학회사 차세대 CT 선택

이동형 CT ‘옵니툼 엘리트 PCD’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와 삼성메디슨, 뉴트로지카(이하 삼성)가 26일부터 3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북미영상의학회 2023(RSNA 2023)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광계수검출기(PCD)를 탑재한 이동형 CT로는 세계에서 처음 FDA 승인을 받은 ‘옵니툼 엘리트 PCD’를 선보인다.

PCD는 반도체를 활용한 차세대 CT 기술이다. 섬광체를 사용한 기존 방식 검출기와 비교해 높은 해상도와 낮은 노이즈의 CT 영상을 제공한다. 뼈, 조영제, 석회화 조직 등 인체 내부 물질을 분리 표현해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기존보다 적은 조영제를 사용해도 고품질 영상을 구현한다.

삼성 관계자는 “옵니툼 엘리트 모델은 환자의 신체 부위가 들어가는 공간인 ‘보아’가 넓어 7세 이하 소아 환자는 한 번에



옵니툼 엘리트 PCD. 사진제공 삼성메디슨

전신 촬영도 가능해 소아 환자 진단 기기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관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장 겸 삼성메디슨 대표는 “삼성은 의료기술 진보를 통한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해 늘 새로운 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PCD 기술이 탑재된 차세대 이동형 CT 또한 앞으로 더욱 업그레이드해 의료진과 환자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에스오일, TS&D센터 준공

올레핀 다운스트림 핵심 기대

에스오일(S-OIL)은 23일 서울시 강서구마곡산업단지에서 TS&D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미래 사업 분야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에스오일 TS&D센터는 1단계 383억 원, 2단계 1061억 원 등 총 사업비 1444억 원을 투입해 연 건축 면적 3만6700㎡ 규모의 기술개발 연구동으로 완공됐다. 2017년 준공된 폴리머연구동, 윤활유연구동과 함께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석유화학 및 윤활 제품 개발, 저탄소 신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이뤄진다.

에스오일 TS&D센터는 현재 건설 중인 사인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2026년 이후 양산될 올레핀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안와르 알 히즈아지(왼쪽 여섯 번째부터) 에스오일 CEO, 진성준 국회의원, 권오규 에스오일 이사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서 개최한 TS&D센터 준공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에스오일

신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저밀도 선형 폴리에틸렌(LLDPE) 등 고객 니즈에 맞춘 다양한 제품 개발과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탈탄소와 에너지 전환에 대비해 에스오일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바이오연료 등 신에

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와르알히즈아지 에스오일 최고경영자(CEO)는 “TS&D 센터는 에스오일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기술 경쟁력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tune@

“감기약, 동네 슈퍼서도 팔 수 있게”… 규제보개기 나선다

올해 네 번째 규제개선 행사

의약품 접근성 개선 제도 취지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안전상비약품판매업소에 대한 '24시간 운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숙박업소에 대한 TV 수신료 등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보개기'(규제보개기 4탄)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중기부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안전상비약품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약국

숙박업소 TV수신료 부과기준 개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면제제한도 국민이 직접 토론 참여 방식 진행

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도시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과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올해 '상비약품판매실태 조사'에 따르면 운영시간 미준수율은 5.5%로 지난해(3.1%)보다 2.4%포인트(p) 증가했다.

편의점 점주인 장동진 씨는 “요즘은 편의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고 야간에는 무인점포로 운영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다”며 “근처에 약국이 없는 동네에 사는 경우 상비약품이 필요할 때 멀리 있는 24시간 편의점까지 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사전 100명, 현장 50명의 투표 결과 규제



이영(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4차 규제보개기, 소상공인 골목규제 보개기' 행사에서 주요 참석자와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형 국민편정단 대표, 이영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완화 찬성 131, 반대 13으로 집계됐다. 참가자 변승한 씨는 “의학 전문가에 의해 처방되어야 하는 것이 ‘상비약’이라는 용어 자체에 들어있다”며 “편의점주도 의학적 지식을 갖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24시간 규제가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송민재 씨는 “의약품은 공산품과 달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요건을 완

화할 경우 무분별한 시장 참여가 이뤄질 수 있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세 숙박업소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수신료 부과체계 개선방안도 토의됐다. 가정용 TV 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는 매월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윤보라 중기부 유통·서비스정책관은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리화 추진을 건의했으나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도 “유통·서비스정책관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왔

을 때 시대 흐름에 맞춰 수신료 부과체계를 다양화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민투표는 찬성 106명, 반대 38명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육점에서 곰팡,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려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하고,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동일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돈가스 등)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민투표는 찬성 94, 반대 51로 나타났다.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장이 참석해 “소상공인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신한알파로 자산이 알파만파

알아서 챙겨주는 투자메이트 신한투자증권 신한알파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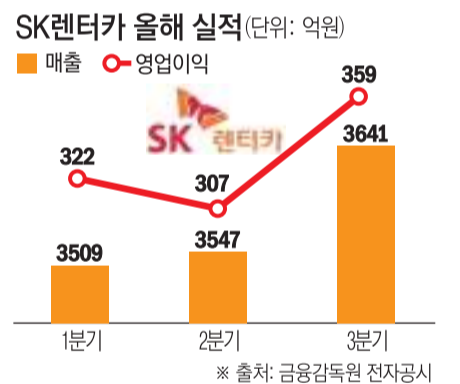
- ☑ 다른 증권사의 보유종목도 편하게 관리하고
- ☑ 투자자들의 매매 정보도 한눈에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국내주식 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91639%(거래금액, 국가별 상이)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2285호 (2023-06-26 ~ 2024-05-31)



SK렌터카 실적개선 ‘가속’ 비결은 중고차 상품 다변화·서비스 혁신

3분기 누적 매출 이미 1조 웃돌아 영업이익은 작년 한 해 실적 넘어 장기렌터카 등 신규고객 잇단 창출



SK렌터카가 고금리 등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도 실적 순풍을 이어가고 있다. 중고차와 관련한 상품을 다변화하고 꾸준히 서비스 혁신을 이어온 것이 비결로 꼽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렌터카는 올해 1, 2분기에 이어 3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또 한 번 웃돈 실적을 내놓았다.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36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8.4%, 15.2% 늘어난 359억 원, 103억 원을 기록했다.

SK렌터카는 2020년 1월 A.렌터카와 합병 후 이듬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 이후로도 성장세는 꾸준히 이어져 작년에는 매출 1조2465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예고하고 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이미 매출 1조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989억 원)은 지난 한 해 기록(951억 원)을 넘어섰다.

SK렌터카의 연이은 실적 우상향은 장기렌터카 온라인다이렉트 채널 ‘SK렌터카다이렉트’가 시장 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신규 고객을 꾸준히 창출한 점을 들 수 있다. 또 중고차매각대수 증가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로 중고차를 수출해 판매 채널을 확장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SK렌터카는 지난해 하반기 전 체 중고차 매각 대수 중 약 5.7%를 수출했다. 올 3분기 수출 비중은 12.6%로 약 2배 이상 증가하며 견조한 매각 수익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이와 더불어 중고차를 활용한다

채로운 상품 라인업이 중고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의 세분된 요구를 충족하고, 실적 상승에도 주요한 것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SK렌터카는 업계 최초의 상품을 꾸준히 선보이며 현재 시장에서 중고차 관련 가장 많은 상품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SK렌터카의 중고차 관련 상품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고차 장기렌터카 △탄 만큼 이용료를 내는 타고페이 △타보고 원하는 시점에 즉시 인수 가능한 타고바이 △한 달씩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월렌트 △신차부터 관리해 온 중고차를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인증중고차 등 5가지 종류가 있다. 이들 상품 모두 자사 보유 차량을 상품화해 고품질의 중고차로 탄생시켜 신차 대비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심하고 이용 혹은 구매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SK렌터카는 기존 오프라인에서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월 단위 중고차 렌탈 상품을 일반 개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월렌트’ 상품을 출시하며 중고차를 활용한 상품 다변화를 지속했다. 기존 ‘짧은 주행거리’에 초점을 둔 타고페이와 원하는 시점에 ‘즉시 인수’를 겨냥한 타고바이와 달리 월렌트는 한두 달 짧은 방학, 출장 등 ‘대여 기간’에 집중하며 차량을 이용하려는 고객의 선택지를 더욱 넓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어린이들 누구 하나
대한민국 어디 하나
빠짐없이 행복하도록-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린이들의 내일을 담는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국공립 흥천시동 하나어린이집

• 53호 흥천시동 하나어린이집 (23년 9월말 기준 78개소 건립완료)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꿀찌 탈출’ 이끈 황현식



LG U+ 대표 연임 성공

황현식(사진) LG유플러스 대표가 연임한다.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룹 차원에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23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황대표 연임 건을 비롯한 2024년 임원 인사를 확정했다. 2021년 3월 취임한 황대표의 잔여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황대표의 연임은 이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24일 공식 발표된다.

황대표는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 장애 사태로 위기를 겪었지만 전사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진두지휘하는 등 진정성 있게 사태를 수습하고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고 3년 3분기 사업에서 탈출하며 경영성

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 승진 최고경영자(CEO)로 발탁된 황 대표는 1999년 LG텔레콤에 입사한 정통 LG맨이다. LG유플러스의 모바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성과를 인정받은 인물이다. 그는 대표 취임 이후 유무선 사업을 탁월하게 리딩하는 동시 미래 성장 전략인 U+ 3.0 플랫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 대표는 취임 이후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찐팬’ (충성고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 결과 LG유플러스는 창사 이래 최초로 이동 통신 가입회선 수에서 KT를 제치고 업계 2위로 올라서며 통신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9월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 현황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창사 이래 첫 영업이익 1조원 돌파
KT 제치고 이동통신 점유율 2위

인공지능·IDC·전기차 충전 등
‘非통신’ 신사업도 가속도 낼 듯

기준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수는 1801만 6932명으로 KT(1713만 3388명)를 넘어섰다. LG유플러스가 KT 가입자를 추월한 것은 1996년 LG텔레콤을 설립하고 무선 사업을 시작한 이래 최초다. LG유

플러스는 차량 관제, 원격 관제, 무선 결제 등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중심으로 빠르게 가입자를 늘려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취임 이후 ‘찐팬 잡기’를 강조한 황 대표의 전략이 통하면서 LG유플러스의 연평균 해지율은 황 대표 취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9~2021년 약 1.4%대에 머물렀던 분기별 해지율은 2022년부터 1.0%대로 개선됐다. 지난해 3분기에는 역대 최저 수치인 1.0%를 기록했다.

황 대표가 신사업으로 내세운 플랫폼 사업들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며 순항 중이다. 키즈 전용 플랫폼 아이돌나라는 누적 시청 건수 2000만 건을 넘어섰고 반려동물 플랫폼 포동 가입자 수 30만 돌파,

일상기록 SNS 플랫폼 베타 다운로드 10만 건 기록, 스포츠플랫폼 스포키 누적 이용자 2700만 명 돌파했다.

황 대표가 내년부터는 AI(인공지능)·IDC(인터넷데이터센터)·전기차 충전 등 신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는 2027년까지 비통신 매출 비중을 4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AI 시장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는 LG AI연구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협력해 생성형 AI(인공지능)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초거대 AI ‘역사원 2.0’과 협력해 AICC 고도화에 나서는 한편 내년 자체 개발한 ‘익시젠’도 선보일 계획이다. 김나리 기자 nari34@

“영업종료 거래소, 투자자 피해 최소화” FIU, 권고사항 내놨지만... 효과 의문

〈가상자산〉

금융위원회가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이번 권고사항에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영업 종료를 선언한 거래소 코인빗에서는 과거에도 자금 미반환 사례가 있어, 이런 우려는 더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로 인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하며, 반환 현황 모니터링 진행 및 필요시 현장 점검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번 권고사항에서 특히 자산 반환에 대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우선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며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 공지 △즉각적인 입금 중단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 공지
종료후에도 최소 3개월 출금지원
자금 반환 모니터링·현장 점검도
법적 강제력 없어... 효과 미지수
코인빗, 고객과 출금 놓고 소송전
패소했지만 수개월째 반환 미뤄

△출금 지원(영업 종료 후 최소 3개월) 등을 권고했다.

다만, 이번 금융위의 발표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현재는 (근거가 되는 법이) 특검법에 따라서 자금 세탁방지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만큼, 법의 본질상 이런 내용(강제성)을 법에 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권고사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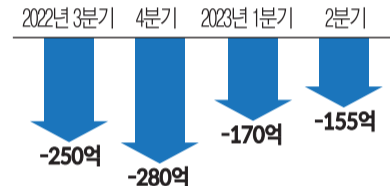
이때문에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일부 거래소는 영업 종료를 선언한 상황이고, 강제력이 없는 만큼 이미 사업을 철수하기로 마음먹은 사업자의 선의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거래소에 자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법이 없으니 당국도 일단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효성은 사실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례로 16일 서비스 종료 선언한 코인빗은 24일 이후에서야 회원가입 및 입금이 중지되고, 29일에는 출금마저 중지되는 상황이다. 이는 금융위가 권고하고 있는 △최소 1개월 전 영업 종료

가상자산거래소 VASP 사업자

원화마켓	5
코인마켓	21 10개사 수수료 매출 '0' 18개사 완전자본잠식

코인마켓 거래소 영업이익(단위: 원)



※ 출처: FIU 가상자산사업자 2023 상반기 실태조사

공지 및 즉시 입금 중단 △충분한 출금 기간(예시 3개월)과 큰 차이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코인빗은 서비스 종료 이전에 고객 자금 출금에 문제 있었던 거래소다. 코인빗 이용자 A씨는 올해 6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3100만 원 규모의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아직까지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코인빗은 판결 이후에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9월에는 A씨에게 법원이 인정한 3100만 원 대신 이자와 법률 비용 등을 제외한 원금 2200만 원 정도를 분할 상환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A씨가

구체적인 일정이나 상환 계획을 묻자, 거래소는 “조율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반환을 현재까지도 미뤄오고 있다.

당시 A씨는 8월 말 금융위에 해당 건에 대한 민원 제기했다. A씨는 “금융위는 10월 초에서야 특검법 상 규율내용이 아니라 직접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민원 내용을 사업자(코인빗)에 이첩했다고 답했다”면서 “재판 승소 이후에도 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민원을 넣은 것인데, 이 정도면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코인빗 사례와 관련해 FIU 관계자는 “그런 것들(코인빗 사례)을 포함해서 고객 자산이 반환돼야 하기 때문에(권고사항을 발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도 할 것”이라면서 “코인빗도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업 종료 거래소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영업 종료를 한다고 해도 사업 끝까지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안유리 기자 inglass@

SKT·KT ‘월드 커뮤니케이션 어워드’서 나란히 2관왕

SKT, 클라우드·네트워크기술 부문
KT, 올해의 통신사·미래 부문 수상
“K-이동통신 기술력·혁신성 입증”



SK텔레콤(왼쪽 사진)·KT 관계자들이 22일(현지시간) 월드 커뮤니케이션 어워드 시상식에 참가해 수상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KT

SK텔레콤과 KT가 영국 통신 전문 매체로부터 이동통신 관련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양사는 2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월드 커뮤니케이션 어워드(World Communication Awards·이하 WCA)에서 각각 2개 분야를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25회째를 맞는 WCA는 영국의 통신 전문 매체인 ‘토탈 텔레콤’(Total Telecom) 주관 시상식으로 통신 관련 기술, 네트워크, 브랜드, 콘텐츠 등 총 23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기업을 선정하는 행사다.

SKT가 수상한 분야는 △클라우드 △지속 가능 네트워크 기술이다. 클라우드 부문에서 SKT는 삼성전자, BICS,

AWS, SK텔레콤과 함께 클라우드 분야의 혁신 사례로 인정받았다. SKT는 해외 주요 국가에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처리 장비를 구축하고 해외 로밍 중인 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밍 엣지 클라우드’(Roaming Edge Cloud) 솔루션을 개발한 공로다. 이 서비스는 기존 대비 인터넷 접속시간을 최대 80%, 다운로드 속도 최대 30%를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해외 로밍 고객은 지도 검색, SNS, 동영상 시

청 등 데이터 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SKT는 지속 가능 네트워크 기술 부문에서 인텔(Intel)과 함께 공동 연구 개발한 IPM(Infrastructure Power Manager) 기술로 수상했다. 에너지 절감 등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위해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준 제조사 또는 통신사를 선정하는 부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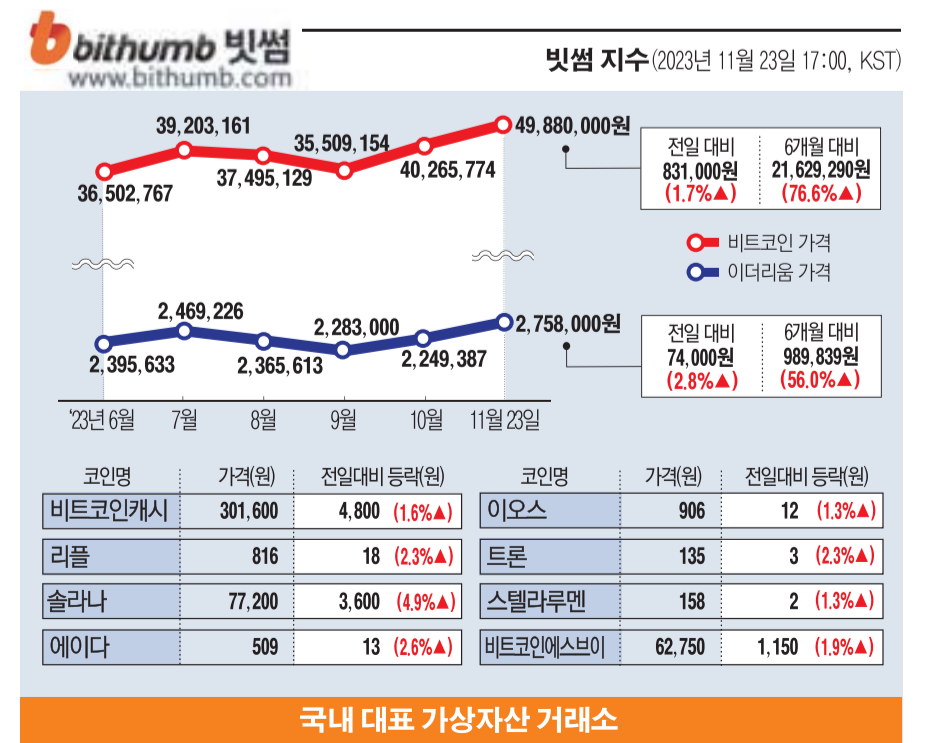
KT는 △올해의 통신사(Operator of the Year) △미래 부문(The Fu-

ture Award)에서 수상했다. 올해의 통신사는 한 해 가장 인상 깊은 업적을 보여준 통신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KT는 탄탄한 네트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을 전 세계에 입증했

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 부문은 통신과 연계된 뛰어난 미래 기술을 선보인 통신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KT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재조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 재건축 몸값은 ‘뚝, 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국토위 법안소위 이견만 확인
완화 법안 연내 통과 불투명

주요 단지 9월 대비 1억선 하락
정책 불확실성, 시장 냉각 우려

부동산 현안 법안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재건축 단지 집값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야는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조환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 등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안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이들은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태도지만,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 불발 가능성이 더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고 재조환 개정안과 실거주의무 폐지법 등을 상정

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조환 부과 기준과 관련해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일단 다음 소위 때 결론을 짓기로 의견 차이를 좁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 소위 통과 전망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합의 불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남은 법안소위 일정은 29일과 다음 달 6일 두 차례뿐이다.

법안은 발의 후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돼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남은 절차가 일상천리로 이뤄져야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부동산 정책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시장은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을 접은 모양새다.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재건축 단지 상승률은 0.01%로 집계됐다. 재건축 단지는 5월부터 보합 전환돼 일반단지보다 먼저 상승세

에 시동이 걸렸다. 이후 9월 22일 0.03%까지 오르며 일반단지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엔 하락세를 보였다.

주요 단지 최근 시세는 9월 대비 1억 원 가량 하락했다. 현재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형 시세(매도 호가)는 24억7000만 원부터다. 9월 실거래가 25억9000만 원보다 1억 원가량 낮은 가격이다. 강남구 ‘은마’ 전용 76㎡형 역시 9월 23억7000만 원에 실거래됐지만, 이날 시세는 23억 원부터 시작한다.

재조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번 완화안은 재건축 사업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조합원 한 명당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부담금 부과 구간은 부과 요율에 따라 70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한다. 현재 야당은 면제 기준과 부과율 구간 금액을 정부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

로 알려졌다.

재조환 개정안 불발 시 서울 핵심지의 경우 수익 원 규모의 부담금 폭탄을 떠안아야 하는 정비사업장이 다수다. 용산구 한 아파트는 조합원당 부담금이 7억7000만 원에 달한다. 강남구와 영등포구에서도 3억~4억 원 규모의 부담금 예상되는 단지들이 있다. 이러한 사업성 악화로 재건축 사업은 중단되고, 정비사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서울 내 신규 공급은 기약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는 정책 불확실성이 집값 내림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집값이 상승하려면 금리 인하 등 경제적인 측면이 개선되던가, 아니면 시장에 긍정적인 정책이 시행돼야 하는데 현 상황은 둘 다 막힌 것”이라며 “최근 집값 상승세가 꺾였는데 정책 불확실성이 집값 냉각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집값 약세 본격화?

전국 아파트값 보합 전환
서울 강남구 0.02% 하락

전국 아파트 매매값이 보합(0.0%) 전 환됐다. 집값 상승 폭은 5주 연속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도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지난주보다 하락했다. 전셋값도 매매값 약세 영향이 계속되면서 전국과 서울 기준 모두 전주 대비 하락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2%포인트(p) 내린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3% 상승해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0.02%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에서도 약세가 포착됐다. 용산구와 성동구, 양천구는 강세를 보였다. 이번 주 서초구는 보합, 강남구는 하락 전환(-0.02%), 송파구는 0.05% 상승 수준을 기록했다. 유지했다. 강동구는 지난주보다 0.05%p 하락한 0.07%로 집계됐다. 용산구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인 0.10%로 나타났다. 성동구는 전주 대비 0.01%p 오른 0.11%로 나 홀로 강세를 이어갔다. 반면, 이번 주 강북구와 노원구는 각각 0.03%와 0.04%씩 하락했다. 도봉구 역시 0.01% 하락으로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됐다.

이번 주 기준 올해 누적 변동률은 서울 2.28% 하락, 전국은 4.98% 하락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희망가격 격차로 광물세가 심화하는 가운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고 매수 문의가 줄면서 일부 단지의 집값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코오롱글로벌, 육·해상 풍력 ‘신성장동력’

EPC 도급 기준 25% 점유율 1위
수처리 등 신재생 에너지도 확대

최근 주택 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건설사가 새 먹거리로 풍력발전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풍력발전사업 점유율 1위 기업인 코오롱글로벌의 상승세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풍력발전 분야에서 설계·조달·시공(EPC) 도급 기준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경주 1단계 풍력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경주(38MW), 태백 가덕산(80.7MW), 양양

(46.2MW), 평창(26MW) 등 총 34개(1020MW) 규모 풍력발전소를 운영 중이거나 설립 단계에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육상풍력 발전사업 경험을 통해 발전사업 전 과정에서 역할을 보유하며 풍력발전사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중이다. 나아가 육상풍력단지에서 축적한 발전사업 기술과 해상풍력 사업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400MW 규모의 완도장보고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이후 설계 등 후속작업을 진행 중이며, 2024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코오롱글로벌 '경주풍력 발전 2단지' 전경. 사진제공 코오롱글로벌

아울러 코오롱글로벌은 육·해상 풍력발전 외에도 수처리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 중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오롱글로벌 환경플랜트 부문 매출액은 지난 2020년 1821억 원에서 2021년 2191억 원, 2022년 3305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설 부문 매출액에서 환경 플

랜트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9%에서 2022년 16%로 크게 늘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주력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육·해상 풍력 사업에 선도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 수처리, 수소 등 융복합을 통해 지속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현대백화점 패밀리워크

23.11.10 — 11.26

THE HYUNDAI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현대백화점 그룹이 함께하는 쇼핑 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백화점과 면세점부터 한성, 리바트, 지누스까지 생활의 모든 순간에 자리하는 현대백화점 그룹이 함께 쇼핑 축제를 엮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사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H-Super Pass부터 꼭 갖고 싶은 경품을 모은 래플 이벤트까지,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와 선물을 지금 확인하세요.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하늘 | 현대그린푸드 | 한성 | 더한성닷컴 | 현대리바트 | 현대.&C | 지누스 | 현대엔탈케어 | 현대드림투어 | 현대어린아이미술관

자세히 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K-금융 전도사’ 진옥동號 “5년간 영국에 3.2조 투자”

신한銀, 대규모 글로벌 투자

금융권 대표적 ‘국제통’으로 꼽히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이 대규모 글로벌 투자를 단행한다. 영국에 향후 5년간 3조 2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통해 해외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취임 후 8개월 동안 6개국을 방문해 글로벌 사업 확대와 함께 K-금융 세일즈에 나서는 등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23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기업통상부와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신한은행은 신한금융 계열사 중 투자 전문 역량을 보유한 신한자산운용, 신한라이프, 신한투자증권 등과도 협업체를 형성해 향후 10억 파운드(GBP·1조6000억 원) 규모 이상 투자도 진행한다. 신한금융 전체적으로는 총 20억 파운드 이상(3조2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다.

英 기업통상부와 투자협력 협약 런던 중심 자금시장 허브 구축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집중

올해 3월 취임한 진 회장의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이 본격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 회장은 취임 이후 ‘해외시장 확대’에서 돋보이는 행보를 보였다. 금융지주 회장 중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K-금융 전도사를 자처했다.

그는 취임 직후인 4월 첫 해외 기업설명회(IR)를 위해 일본을 방문해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 유치와 한일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6월에는 네덜란드·프랑스·영국을 찾아 현지 투자자들과 만났다. 지난달 2~4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일본을 찾아 양국간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달 9~15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세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글로벌 일정

3월	진옥동 회장 신한금융지주 회장 취임
4월	취임 후 첫 해외IR로 일본 방문
6월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IR
9월	영국, 독일(금융감독원과 공동 IR)
10월	금융위원회와 일본 방문 IMF·WB 연차총회 모로코 마라케시 방문



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로코 마라케시로 건너갔다. 이 자리에서 세계 각국 금융 전문가 등과 만나 글로벌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오랜 기간 일본에서 경력을 쌓은 ‘일본통’인 진 회장은 일본 내 끈끈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일교보 주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나카지마 준이치 금융청 장관과 히미노 료조 일본은행 부총재 등을 비롯해 엔도 도시히데·모리 노부치카 전 금융청장, 가토 하루히코 전 국제청장 등 전·현직 관료와도 교류가 깊은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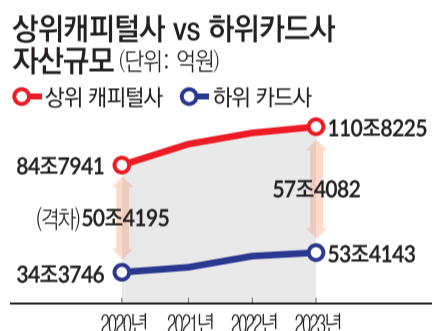
로 알려졌다. 진 회장은 신한은행 1997년 일본 오사카 지점 대리로 발령받아 주재원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귀국 후 여신심사역으로 근무하면서 갖추게 된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일본에 기업재생 전문회사인 SH캐피탈을 세웠다. 2007년에는 신한은행 일본법인인 SBJ은행 설립을 추진해 2015년 SBJ은행 법인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영국 기업통상부 운영협의회(Steering Committee)와 실무자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추후 신한은행은 런던을 중심으로 자금시장 허브를 구축해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지역의 자금 조달과 운용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증권·파생·FX 거래 등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런던에 글로벌 채널을 보유한 신한은행이 영국 정부와의 오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업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영국 기업통상부 케미 베데노크 내각장관과 정상회담 신한은행장이 서명식을 진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영국 정부와 협력해 영국 내 투자는 물론 EMEA 지역 등 폭넓은 투자 기회를 확보하고, 계열사와의 협업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영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성공적인 민간 협업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자산 몸집’ 커진 캐피탈사... 카드사도 넘본다

중고차 할부금융 중심 순익 급증 현대·하나·KB캐피탈 등 급성장 카드사는 업황 악화서 못벗어나 캐피탈사 규제완화 목소리도 높여



상위권 캐피탈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하위 카드사의 순 자산 규모를 추월했다.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 확대에 힘입어 캐피탈사의 자산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캐피탈사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라는 업계 관측이 나온다.

23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현대캐피탈의 순 자산 규모는 39조32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44조4634억 원)를 제외한 타 카드사의 순 자산 규모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다른 상위권 캐피탈사의 자산 규모도 성장했다. 같은 기간 자산 규모 상위 6개 캐피탈사(현대·신한·하나·KB·우리금융·현대캐머셜)의 자산 총합은 110조8225억 원으로 전년 동기(106조4703억 원)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캐피탈(39조3264억 원)에 이어 △하나캐피탈(18조500억 원) △KB캐피탈(16조2061억 원) △신한캐피탈(13조2000억 원) △우리금융캐피탈(12조640억 원) △현대캐머셜(11조9760억 원) 순이었다.

이는 하위권 카드사(롯데·우리·하나카

드)의 자산 규모를 넘는 수준이다. 신한캐피탈·우리금융캐피탈·현대캐머셜은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며 BC카드(7조2000억 원)의 자산 규모를 앞섰다. KB캐피탈은 카드업계 7위인 하나카드의 올 3분기 자산(13조7379억 원)보다 많다. 하나캐피탈은 업계 6위 우리카드(17조3348억 원)를 넘어섰다.

캐피탈사의 자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동차 금융을 중심으로 순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고차 금융 시장이 확대되며 중고차 할부금융을 중심으로 영업을 강화하는 등 자산 규모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대캐피탈의 중고차 금융 자산은 올해 1분기 2조5921억 원에서 3분기 2조7889억 원으로 1968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KB캐피탈의 중고차 금융 자산은 2조1556억 원에서 2조7786억 원으로

6230억 원 증가했다. 캐피탈사의 올해 3분기 실적도 선방했다. 주요 캐피탈사 4곳(현대·신한·하나·KB)의 순 연결 당기순익 총합은 53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상승했다.

현대캐피탈은 1273억 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신한캐피탈 역시 이번 분기 1028억 원의 당기순익을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KB캐피탈도 535억 원의 순익을 기록하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카드사들은 업황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3분기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당기순이익은 7369억 원으로 전년 동기(8626억 원) 대비 15% 감소했다. 조달금리 상승과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두 업계의 희비가 교차하며 여신업권 내에서 캐피탈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캐피탈 업계는 렌탈자산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허용을 요구하는 등 현행법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과거 캐피탈사는 카드사의 하위라는 인식 강했으나 최근 몸집을 부풀리며 금융권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원 기자 jsw@

한국 믿고 투자하라더니... ‘감독규제 일관성’ 어디로 해외투자자에 ‘상생금융’ 설명 어떻게

금융 인사이트

“해외기업설명회(IR) 담당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상생금융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더라고요. ‘communism finance(공산주의 금융)’라고 설명해야 하나 하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런던 국빈방문 경제사절단에 은행장들이 대거 합류한 가운데 국내 금융사들이 때 아닌 ‘상생금융’ 고민에 빠졌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할지 난감해한다. 그 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규제 리스크. 불과 두

배당 효과로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찬 바람 불면 은행주’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불어오는 ‘횡재세’ 논란이 금융주의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55명의 의원은 이달 은행 등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당국 두 수장도 연일 금융권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불을 지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권에서는 이원장이 불과 두 달 전 런던 IR에서 감독규제 일관성을 강조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당황스럽다는 분위기가.

금융사 ‘규제 리스크’ 대비 IR 진행·준비 횡재세 논란 등도 금융株 투자심리 악화 배당 등 주주정책에 역행... 배임 우려도

달 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IR에서 약속했던 감독규제 일관성과 정면으로 배치되기도 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해외 IR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금융사들은 상생금융 리스크를 대비에 한창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이미 이탈이 시작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은 행지수는 전일 대비 0.13% 오른 656.04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한 달간 4.23%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6.6%)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도 굵지 않다. 지난주 외국인인 코스피를 8590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은행주는 1170억 원 팔아치웠다. 보통 연말엔

이 원장은 런던 IR에서 “‘K-금융’의 강점은 신뢰성과 혁신성, 개방성”이라고 강조하면서 “금융감독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규정이나 내부 시스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금융사들에 감독 완화 기조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배당정책 완화 시그널도 줬. 한동안 은행주가 급등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배당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약속했던 감독규제 일관성은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며 “과도한 상생 금융으로 배당 등 주주 정책에 역행하고 있어 배임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서지연 기자 sjy@

국민銀 “국민지갑서 SRT 승차권·수목원 예약까지”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활용해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SRT 승차권과 국립수목원·휴양림을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고객은 국민지갑에서 △SRT 열차 통합 조회 및 예약 △국립수목원(광릉·세종·백두대간) 입장·교육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45개의 숙박 예약이 가능해졌다.

국민지갑 이용 고객은 그동안 각각의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국민지갑에서 한 번에 신청·이용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을 방문하고 싶은 고객은 국민지갑에서 국립수목원을 예약하고 빠른



길 조회 서비스로 경로 검색과 이용 열차 예매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한투證 새 수장에 김성환 내정... “부동산 PF·IB 전문가”

한국투자금융지주 경영진 인사

한국투자증권 새 대표이사 사장에 김성환 개인고객그룹장(부사장)이 내정됐다. ‘샐러리맨 신화’로 알려진 정일문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한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3일 그룹 계열사별 이사회를 통해 최고 경영진 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 내정자는 1969년생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건국대 대학원에서 부동산금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LG투자증권을 거쳐 2004년 한국투자

PF서 채권운용·경영기획까지

금융투자 전 부문 두루 거쳐

리스크 관리·수익 발굴 과제

정일문 사장, 증권 부회장 승진

전찬우 전무는 저축銀 사장에

권에 합류해 프로젝트금융(PF), 채권운용, 기업금융(IB), 경영기획, 리테일 등을 두루 거쳤다.

한국투자증권은 “김 사장 내정자는 금융투자업 전 부문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내정자

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내정자에게는 리스크관리, 수익성, 미래를 준비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역동적 조직 문화 정착 등 적잖은 과제가 있다. 고금리 지속에 따른 채권 운용 리스크와 부동산 PF 부실, 뱅킹기 성장 의욕이 있는 파두 사태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속 가능한 ‘안정적’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튼튼한 미래 성장기반을 다지는 일도 숙제다. 한국투자증권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647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1.80% 증가했다. 영업수익은 17조168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74% 감소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는 전찬우 리테일사업본부장(전무)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전 내정자는 1970년생으로 2001년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입사한 뒤 저축은행 영업과 상품, 기획 전반의 경력을 쌓았다. 현재 업계의 주요 수익원이던

스타트업, 팜스론 등의 사업을 직접 개발하는 등 저축은행 비즈니스의 본질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계열사별 주주총회를 통해 이번 인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투자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보다는 변화의 장기적 흐름과 방향성에 주목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년간 한국투자증권을 이끈 정일문 사장은 증권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계열사별 주주총회를 통해 이번 인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투자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보다는 변화의 장기적 흐름과 방향성에 주목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년간 한국투자증권을 이끈 정일문 사장은 증권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미래에셋운용 최창훈·이준용 각자대표 선임... 책임경영 강화

임시주주총회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대표이사에 최창훈·이준용 부회장을 선임했다.

23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최창훈·이준용 부회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최 대표이사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부동산투자부문대표, 미래에셋자산운용

리더십·글로벌 경영 마인드 갖춰

2대표·4총괄 체제로 전문성 높여

부동산부문 총괄 등을 거쳐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대체투자부문 총괄대표를 맡고 있다. 2021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에 오른 최 대표는 부동산 전문가로,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이바지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이 대표이사는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부문 총괄대표로, 운용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로 평가된다. 또 미래에셋자산운용 영국법인 최고경영자(CEO), 미국·브라질법인 최고투자책임자(CIO) 등을 역임해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선임된

대표이사 2인은 금융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리더십과 글로벌 경영 마인드를 보유했다”며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4총괄 조직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명의 대표이사와 4명의 총괄대표 체제를 갖추고 있다. 대체투자부문은 최 대표이사, 운용부



최창훈(왼쪽)·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각자대표

문은 이 대표이사, 혁신·글로벌경영부문은 김성환 사장, 마케팅부문은 이병성 부사장이 총괄대표를 맡고 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서유석(왼쪽 네 번째) 금융투자협회장, 이복현(세 번째)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품을 자르고 있다.

70돌 금투협 “대한민국 성장엔진 될 것”

업계·정부 등 200명 기념식 참석

“앞으로 우리 금융투자산업이 세계를 무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원로와 대표이사, 국회, 정부, 학계 주요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투자협회 전신인 대한증권업협회는 1953년 다섯개 증권회사가 모여 우리나라에 자본시장과 증권거래 제도를 도입하면서 설립됐다. 이후 금융투자산업은 기업자금을 조달하고 국민 자산 증식 수단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했다.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현재 2400조 원을 웃돌고, 자산운용시장 순자산총액은 1500조 원에 달한다.

글·사진 박민규 기자 pmk8989@

이복현 “유명 핀플루언서 불법 차익실현 포착”

“현재 유명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를 합친 신조어)가 저지른 범죄 2~3건을 포착해 조사 중이며, 조속히 결론을 내려고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명 핀플루언서가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유도한다음 보유하고 있는 차명 계좌에서 매도하는 방식 등의 이익을 실현하는 형태를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라든가 리딩방 운영자 등 유명 핀플루언서들이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적으로 저지른 범죄 두세 건 정도 포착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력을 집중하고 검찰과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속한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분

금투협 창립 기념식에서 밝혀 “시장 교란 불러... 조속히 결론 댈 예정”

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분들이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한다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것들은 시장 교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감하나 잘못된 사실 정보가 시장 교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박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여론과 의견이 자유로운 장에서 공론화되고 그 과정에서 시장경제적 메카니즘이 작동해야 된다는 데 저희도 공감한다”며 “다만 전혀 다른 숫자나 틀린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어떤 잘못된 시장 불안 행위를

조성한다거나 범죄까지 이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 실수라기보다는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될 경우 시장 교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횡재세법’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을에 수십년 만에 기근이 들어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하나 알뜰단 같이 써야 하는데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개별 금융기관 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박민규 기자 pmk8989@

한양證, 대한민국소통대상 증권부문 대상

소통 강화 이색조직실험 펼쳐

한양증권은 대한민국소통대상 증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소통대상은 한국인터넷소통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6회 대한민국소통어워드 중 올해 새롭게 신설된 상이다. 한양증권은 소통효과, 콘텐츠 경쟁력 등을 종합한 소통만족도 종합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했다.

특히 사내커뮤니케이션은 독보적이라

는 평가다. 한양증권은 2018년 임재택 대표이사 취임 이후 임직원 간 소통 활성화에 힘써왔다. 시티투어 마실, 나이트런 펠라, 루프탑 비어페스트 선셋타임, 컬처투어 블루문 등 임직원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올해 들어서는 모든 임직원을 50개 셀(Cell)로 세분화해 소통을 강화하는 이색 조직실험을 단행했다. 대표이사가 5개월간 매일 아침 모든 부서를 만나 응원을

전하는 ‘돌체’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리더와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조직의 응집력을 키웠다는 평가다.

임재택 대표는 “살다 보면 우연한 기회를 통해 삶이 바뀌는 걸 종종 경험하게 된다”라며 “주니어들에게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는 조직, 소통 창구가 항상 열려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며 최고의 강한 One Team(하나의 팀)이자 Special Team(특별한 팀)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했다.

정희인 기자 hihello@



유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의원,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 박영택 한국인터넷소통협회장이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16회 대한민국 소통어워드 시상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한양증권

몰입감 '끝판왕' ... 글로벌 게이머 37억명 홀린다



삼성전자, Neo QLED·OLED TV

‘2023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월드컵)’은 흥행과 관심 면에서 새 역사를 썼다. 19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된 결승전 세계 동시 접속 시청자 수는 1억 명, 누적 접속 시청자 수는 4억 명에 달했다.

게임산업 조사업체 DFC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게임 인구는 약 37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 중 약 5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9회 항저우아시아게임에서는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될 만큼 대중의 관심도 높아졌다.

이렇게 게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방식도 중요해졌다. 최근에는 생생한 화질과 화려한 그래픽을 즐기기에 TV를 활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특히 삼성의 네오(Neo) QLED와 OLED TV는 압도적인 화질 및 게이밍 성능과 차별화된 게이밍 허브로 게임 마니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삼성 Neo QLED는 독자적 화질 제어 기술인 ‘Neo 퀀텀 매트릭스’로 완벽에 가까운 밝기 제어를 통해 화면 가장 어두운 곳부터 가장 밝은 곳까지 섬세한 디테일로 표현한다.

삼성 Neo QLED 4K 게이밍 TV QN90C는 20개의 뉴럴 네트워크, 인공지능(AI)으로 강화된 뉴럴 퀀텀 프로세서4K, 슈퍼 울트라와이드 스크린 등이 탑재돼 콘텐츠를 업스케일링할 때에도 끊김 없이 최상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43형과 50형 모델에 적용된 미니LED는 최대 144Hz의 주사율을 자랑한다. 이를 통해 빠르고 자연스러운 디스플레이로 콘텐츠 시청과 게임 플레이를 위한 최적의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제공한다.

삼성 OLED TV 역시 20개의 뉴럴 네트워크가 4K로 업스케일링해주고, 화질 및 사운드를 최적화해 준다. ‘퀀텀 HDR OLED+’로 탁월한 밝기와 압도적인 명암비를 구현하고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표현해 입체감 있는 화질을 통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 자체 광량 픽셀이 블랙에서 화이트까지

완벽에 가까운 색을 구현하며, 탁월한 밝기와 명암비의 HDR 10+가 적용돼 영상의 깊이감을 더한다. 또 삼성 고유의 ‘OLED Brightness Booster’ 기능으로 OLED 패널의 아쉬운 점으로 인식되었던 밝기 성능을 대폭 개선했다. 눈부심 방지 기술 적용해 빛 반사가 거의 없어 더욱 또렷한 영상을 즐길 수 있다.

팬톤이 인증한 컬러 매핑 기술도 적용돼 정확한 색상과 피부톤을 표현해 준다. 이 밖에도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를 적용해 상하좌우로 공간을 가득 채운 입체적이고도 현장감 넘치는 사운드도 제공한다.

디자인 역시 탁월하다. 약 11mm의 얇고 균일한 두께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아름다운 인피니트슬림 디자인이 적용돼 공간의 품격을 높일 뿐 아니라, 벽걸이 설치 시 틈 사이를 최소화한 밀착 형태로 높은 만족도를 자랑한다.

게임 그래픽 수준이 날이 갈수록 향상되면서 이를 제대로 구현해 내는 디스플레이 기술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삼성 TV는 생생한 게이밍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성능 진화를 거듭했다. Neo QLED와 OLED TV는 리얼 4K 144Hz를 지원하는 ‘모션 터보 Pro’ 기술을 적용했다. 특히 화면 전환이 빠른 FPS나 레이싱 게임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또한 ‘AMD FreeSync 프리미엄 프로’ 기술로 화면의 밀림이나 끊김 현상 걱정 없이 부드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게임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화면 비율도 설정할 수 있다.

삼성 TV는 화면 비율을 21:9, 32:9로 설정할 수 있다. 울트라와이드 뷰 상태에서 멀티뷰 기능이 지원돼 넓은 화면에서 게임과 동시에 다른 창을 띄워 공략법도 확인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된 ‘게임바3.0’으로 다양한 게이밍 설정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고, 게임 내 미니맵을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미니맵 확대’, 미니맵을 모니터와 태블릿 등 다른 화면으로 공유해서 볼 수 있는 ‘미니맵 공유’, 슈팅 게임에 최적화된 ‘조



뉴럴 네트워크로 4K 업스케일링 모션 터보 Pro 통해 144Hz 지원 FPS·레이싱 게임서 성능 최적화

돌비 애트모스 적용 음향 입체화 21:9·32:9 화면비율 조절 가능 TV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

“보는 TV서 보고 즐기는 TV로... 게이머 최적의 환경 제공할 것”

준점 표시’ 등 기능이 강화돼 게임의 재미를 더해준다. 또한, 4개의 ‘HDMI 2.1 포트’를 지원해 다양한 게임 기기를 동시에 연결하고 원하는 게임으로 쉽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

브라질 매체 ‘Meu PlayStation’는 “삼성 TV는 게이머와 높은 사양의 디스플레이를 찾는 사용자는 물론 상대적으로 보급형 옵션을 원하는 사용자의 니즈도 충족시켜준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영국 매체 트러스티드리뷰 역시 삼성 QLED TV에 대해 “색 정확도가 뛰어나 4K 영상을 디테일하고 선명하게 구현한다”며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TV보다도 응답이 빠르고, 빠지는 게이밍 경험이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또 클라우드 게임 유저가 늘어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실제로 게임 시장 조사 업체 뉴주에 따르면 전 세계 클라우드 게임 시장 규모는 2022년 23억 달러에서 2025년 81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삼성전자는 TV 게임 스트리밍 서

비스 ‘게이밍 허브’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 TV만의 차별화된 게이밍 허브를 통해 별도의 콘솔 게임기, 다운로드 없이 TV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게임 패스, 엔비디아 지포스나우 등 수백 개의 인기 스트리밍 게임을 할 수 있다. 스마트 폰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앱을 이용 하듯 TV의 게이밍 허브를 통해 별도 기기 연결이나 다운로드 없이 저장 공간을 할애 하지 않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최근 실행한 게임, 추천 게임, 게임 관련 동영상, 인기 신작의 트레일러 등 관련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제공한다.

삼성 TV는 이미 이러한 기술을 인정받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3분기 글로벌 TV 시장 실적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 기준 점유율 29.9%를 기록하며 글로벌 TV 시장 1위에 올랐다. 이는 작년 동기 27.5% 대비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수량 점유율에서도 18.3%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특히 삼성 QLED TV는 올해 1~3분기 584만 대 판매되며 프리미엄 TV 시장을 이끌었다. 삼성 QLED는 2017년 처음 시장에 선보인 이후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판매 4000만대를 돌파했다. OLED TV의 경우는 올해 3분기 누적 총 371만대가 판매됐는데, 이중 삼성은 약 62만대를 판매해 OLED 시장에서도 점차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게이머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TV를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7년에는 전 세계 게임 소비 지출이 2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유료 텔레비전 방송과 영화보다 높은 금액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는 TV’에서 ‘보고 즐기는 TV’로 진화한 삼성 TV는 압도적인 게이밍 성능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게임 옵션과 더 즐거운 게이밍 경험을 제공한다”며 “홈 게임을 보다 크고 선명한 화질로 생생하게 즐기고 싶은 게임 마니아에게 최적의 TV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SAMSUNG

래속배달에 美 26개주서 ‘원더풀’… BBQ 신화는 ‘~ing’

K푸드 미국 성공 방정식

④ BBQ 치킨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미국 시장에서 K치킨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다. 2006년 첫 진출 후 17년 만에 미국 전체 주(州)의 절반 이상에 매장을 설립하며, 꾸준히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제너시스BBQ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BBQ는 미국 50개 주 중 절반이 넘는 26개 주에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매장 수는 250여 개에 달한다. 가장 최근 매장을 연 곳은 남부 앨라배마주 대도시 모빌이다. 모빌은 앨라배마에서 버밍햄, 몽고메리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BBQ는 2006년 미국 대륙에 상륙한 이후 현지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에서 한인 상권을 중심으로 매장을 운영해왔다.

이후 매장 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빠른

2006년 상륙… 느리게 성장하다 코로나19에 ‘한국식 배달’ 적중 매장 다양화·메뉴 개발 힘입어 2021년 지점 수 1년만에 2배 ↑

속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비대면 식문화가 발달하면서 한국식 배달 시스템이 미국 현지에서도 먹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창궐 초기인 2020년 말 50개 수준이던 BBQ 미국가맹점은 이듬해 97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BBQ 관계자는 “갓 튀긴 치킨을 가장 맛있는 최적의 상태로 신속하게 배달하고, 배달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체계적이어서 코로나19 시기 다른 현지 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이 컸다”고 설명했다.

지역에 맞게 매장 타입을 다양화하고 현지 특색에 맞는 메뉴를 선보인 점도 성

BBQ 미국 진출 현황

첫 매장	뉴욕 맨해튼 32번가 (2006년)
진출 주(州)	26개주
매장 수	250여 개
해외 진출 목표	(미국 포함) 2030년 5만개 매장

※ 출처: 제너시스BBQ그룹



공 비결로 꼽힌다. 매장에서는 치킨뿐만 아니라 떡볶이, 순두부 등 최근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한식 메뉴도 맛볼 수 있다. 포장 문화가 발달한 미국인의 취향을 더욱 확실히 사로잡기 위해 올해 5월에는 뉴저지주 잉글우드에 배달·포장 전문 첫 매장을 열었다. 이는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고 푸드러커(사물함)에서 치킨을 찾아가는 무인화 매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매장 수를 늘린 BBQ는 올해 8월 미국 외식 전문지인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Nation’s Restaurant News)’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외식 브랜드 7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3년 연속 톱(TOP) 10에 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프랜차이즈 전문매체 ‘프랜차이즈타임스’가 선정

한 ‘프랜차이즈 톱 400’에도 처음 이름을 올렸다. 순위는 118위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중 유일하게 400위 안에 들었다. 이때는 BBQ를 선정하면서 “한국에서 맛을 똑같이 구현한 점과, 가맹점 지원 시스템”을 강점으로 꼽았다.

BBQ는 미국을 넘어 캐나다와 남미 시장까지 해외 진출 영토를 넓힐 계획이다. 올해에는 중미 파나마와 코스타리카에도 매장을 열었다. 여기에 동남아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5만 개 매장을 운영한다는 목표다.

윤홍근제너시스BBQ그룹회장은 올해 창사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근기와 도전 정신으로 제너시스BBQ그룹이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BBQ 관계자는 “미국에서 새 매장을 계속 열고 있으며, 앞으로도 K치킨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j42@

직영 줄이고 입점 늘리고… 정용진의 ‘체험 매장 확대’ 그대로 녹였다

르포 이마트 하월곡점 리뉴얼

직영 매장 축소·테넌트 2배 확대
 日 가구점 니토리·다이소 키우고
 델리공간 ‘오픈키친’ 형태 새단장
 신혼·1인가구 겨냥 주류코너 넓혀

“이마트 리뉴얼 철학에 따라 하월곡점도 직영매장 면적을 줄이고 입점점포(테넌트) 면적을 늘렸습니다. 이후 다른 리뉴얼 매장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 23일 오전 찾은 서울시 성북구 이마트 하월곡점. 2012년 오픈 이후 11년 만에 새단장한 이곳에서 이마트 관계자는 이 같이 강조했다.

뭘가 얼마나 바뀌었을까. 하월곡점은 입구부터 독특했다. 1층 입구 바로 앞에 스크레이터를 타면 지하 1층으로 직행한다. 별도 건물이 아닌 주상복합건물 내 지하에 자리한 특징에 고객 동선을 맞췄다. 매장 규모도 타이마트보다 상대적으로 작기에, “잘하는 것을 하겠다”는 이마트의 매출 전략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하 1층에선 일본의 가구·휴머니싱 업체 ‘니토리’ 매장이 눈에 들어왔다. 2988㎡ 규모의 니토리 한국 1호점이



23일 서울 성북구 이마트 하월곡점 지하 1층에 문을 연 일본 가구 업체 니토리 한국 1호점(왼쪽 사진). 이마트는 이번 리뉴얼로 주류, 특히 와인 매장을 기존보다 3배 확대했다.

다. 그 옆엔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있다. 니토리와 다이소의 매장 크기는 지하 1층 전체 면적 중 약 70%다. 생활용품은 이제 다이소에서 구매하려는 뜻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원래 지하 1층은 비식품을 판매했는데, 이번 리뉴얼로 기존 매대 규모를 대폭 줄이고 고객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테넌트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하월곡점은 7603.3㎡에 달했던 직영 매장을 5057.9㎡로 줄였다. 대신 기존 테넌트 면적을 2644.6㎡에서 5190㎡으로 2배 확대했다.

신선·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지하 2층은 상품구색 확대, 매장 구성·진열에 변화를 줬다. 식품과 주류 상품을 대폭 늘렸다. 또 화·초밥·튀김류 등 델리(Deli) 공간을 매장 중간으로 빼내 오픈 키친(보이는 주방) 형태로 구현했다. 밀키트존(Mealkit zone)을 타원형 진열대로 만들었고 소포장 채소코너도 별도 마련했다. 하월곡점을 찾는 지역고객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다. 이곳은 3~4인가족 단위보다 1인가구와 신혼부부 고객 비중이 높다. 주류 코너도 다양한 주종으로 구색을 확대했고 면적

도 기존 대비 3배가량 늘렸다. 특히 와인은 원산지별로 구분하고 고급와인은 별도 와인셀러에 진열했다.

이마트는 올해 3분기까지 ‘몰타입의 미래형 대형마트’를 표방하는 인천 연수점 등 총 12개의 점포를 리뉴얼했고, 연내 2~3개 점포를 추가 리뉴얼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신규 점포 출점과 리뉴얼 점포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5월 리뉴얼한 연수점을 방문해 “매장 면적이 반 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하나도 줄지 않았다”면서 테넌트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최근 조직개편한 신세계그룹의 컨트롤타워인 경영전략실의 초대 실장에 선임된 것도 이와 같은 테넌트 집중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임대표는 2016년부터 7년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확장하며 성장을 이끌었다. 스타필드가 백화점과 달리 고정임대료 비중이 높고 매출연동 수수료 비중이 낮으면서도 최저보장임차료를 적용하는 구조라, 유통채널의 신성장모델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임대표는 취임 2년 만인 2018년 연간 흑자 달성 등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연간 흑자를 이끌었다. 임대표가 주도한 ‘스타필드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이마트도 ‘본업 경쟁력 강화’에 테넌트 전략을 접목한 것으로 보인다.

정 부회장은 이날 경영전략실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조직, 시스템, 업무 방식까지 다 바꿔라. 지금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새로운 경영전략실은 그룹 내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일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사진 유승호 기자 peter@

싸게, 더 싸게… 고물가에 패션업계도 “가성비”

백화점 명품 매출 비중 줄었는데 LF·이랜드 등 저가매장 매출 쑥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패션 소비 흐름도 바뀌고 있다. 명품 소비가 둔화 된 가운데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패션이 대세다. 패션업계도 소비 트렌드에 맞춰 상품군을 늘리는 등 가성비 패션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백화점의 해외유명 브랜드(명품)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5% 줄었다. 백화점의 전체 매출 중 명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29.1%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2021년(33%), 2022년(34.2%)과 대비된다.

명품뿐 아니라 일반 패션 상품 판매는 더 저조했다. 9월 백화점의 여성정장과 남성류류 매출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11.4% 줄었다. 경기 침체에 나타나는 소비 양극화 현상이 패션 분야에서도 특히 두드러진 탓이다.

대신 가성비 제품이 소비자의 지갑을 열

고 있다. LF에 따르면 남성복 ‘TNGT’의 패딩 TNGT 구스다운의 올해 10월부터 이달 22일까지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TNGT 구스다운은 2021년 겨울 첫 선보인 상품으로 매년 트렌드를 반영한 신상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하며 누적 판매 수 5000벌 이상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올 들어 급격한 추위와 함께 패션 커뮤니티에서 가성비 구스다운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 호황을 맞았다. 현재 LF몰에선 인기 사이즈의 초도 물량이 완판돼 예약 대기를 받을 정도다.

생활용품점 다이소도 가성비를 앞세워 의류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양팔·티셔츠 등 간단한 의류만 판매하던 다이소가 겨울용 플리스와 패딩, 스포츠웨어 등으로 품목을 넓힌 건 최근 들어 가성비 의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이소의 올 1~10월 의류 제품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0% 늘었고, 매출도 140% 급증했다. 신발제조·직매형 의류(SPA) 브랜드 ‘슈펜’에서 출시한 반값 가죽부츠도 출시하자마자 초도 물량이 완판 됐다. 천연 소가죽으로 만든 이 제품은 종아리를 덮는 롱부츠가 7만9900원, 발목까지 오는 앵클부츠가 5만9900원으로 가성비를 자랑한다.

최근 이랜드리테일이 선보인 가성비 패

션 브랜드 ‘NC베이직’도 인기가 있다. 9월 9일 오픈한 NC베이직 파일럿 매장은 첫 오픈 이후 1차 발주 물량 완판을 기록했고, 일 판매량 대비 10배 이상 높은 평당 매출을 올렸다. 가을·겨울 시즌 주력 상품인 스웨터, 기모청바지의 11월 기준 누적 판매량은 스웨터 1만5000장, 기모청바지 1만장을 기록했다. NC베이직의 최대 경쟁력은 경쟁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은 가격이다.

NC베이직은 가성비 패션을 앞세워 오프라인 매장 확대에 나선다. 이달에만 뉴욕 코아 아울렛 광명점·산본점을 시작으로 5곳을 추가 오픈했고, NC베이직의 매장 수는 총 12개가 됐다. 김유연 기자 kyy0907@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때 사전 협의”… 교육부 지침 논란

‘사전협의서’ 인사처 생략하고 각 대학에 ‘교육부와 작성’ 안내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 파견 관행 ‘나눠먹기’ 비판 크자 민간 개방 교육부 “자율권 주려 법대로 진행”

교육부가 국립대에 사무국장 임용 후보자 검증하는 데 있어 인사혁신처를 생략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사무국장 인사권에 계속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21일 각 국립대학에 ‘사무국장 임용 가이드라인(배포용)’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채용 사전협의의 시 검토돼야 하는 사안 중심으로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학은 임용절차를 진행할 때 해당 직위에 맞는 적정한 인재 채용을 위해 대학별로 응시 자격요건을 교육부와 협의해 자율 결정한다.

사전협의의 목적은 ‘법령상 채용절차 불이행, 과도 또는 과도한 응시자격요건 지정 등으로 적정한 인재채용을 저해하거나, 서류·면접시험 등 전형과정에서 공정성 저해 요인 등을 공고 전에 검토·수정함으로써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라고 기재돼 있다. 이는 ‘국립학교 설

치령’ 제10조 3항에 근거한다.

이때, 대학은 인사혁신처와의 사전 협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원래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관련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무국장 임용 과정에선 교육부가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 4항에 따라 이를 대신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립대학의 장은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사전협의서도 작성해야 한다. 협의서에는 임용예정 직위·직급·부서·인원, 주요업무, 응시자격요건, 서류·면접시험 위원 위촉 및 전형계획, 채용검검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공고(안) 채용기본계획 등 참고자료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대학 총장은 사전협의서를 작

성해 공고 예정일 7일 전까지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사무국장 임용은 대학의 총장이 인사발령을 통해 한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 직원 인사, 급여, 법무, 자체 감사,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등 내부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중요 직위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파견돼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이 같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관행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국립대 사무국

장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이 자리에 교수나 민간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들은 다른 부처와 ‘인사 나눠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했는데, 이 같은 공문을 보내면서 교육부 입맛에 맞는 맞춤형 인사를 배치하거나 관리하려고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국립대 총장은 “사무국장 인사권 개입을 사전협의서를 통해 교육부가 계속해서 국립대를 ‘관리’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관련 법령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인사권 개입 관련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자전거 타고 출퇴근 지구 21바퀴 돌았다

에너지·기부 라이딩 1.7만명 참여 건강·환경 챙기고 기부금도 마련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활약으로 올해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 참여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 건강·환경·봉사,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도 에너지·기부 라이딩’ 참여 인원은 총 1만7074명으로, 작년 대비 9배 늘었다. 서울시가 자전거 출퇴근을 장려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올해 행사에는 따릉이가 처음으로 참여했다. 시즌1(5~6월)과 시즌2(9~10월)로 나눠 진행됐는데, 시즌2에는 ㈜야나두의 야핏무브 앱을 이용해 일반 자전거 이용자도 참여 가능했다. 시즌1(1만1457명) 인기에 힘입어 시즌2(5617명) 참여자 수가 두 배 넘게 증가하면서 총 주행거리는 84만1419km를 기록했다. 지구를 21바퀴 돈 셈이다.

참여자들에게 푸짐한 상품도 돌아갔다. 따릉이 참여자들 가운데 ‘최다참여상’, ‘행운상’ 2개 부문 165명을 선정, 총 19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시상했다. 일반 자전거 참여자들도 ‘에너지라이딩 TOP 100’, ‘행운상’ 2개 부문에서 200명이 총 1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에 당첨되는 기쁨을 누렸다.

대표적 유산소 운동인 자전거 타기로 건강을 챙긴 참여자들은 지구도 살렸다. 이들이 올해 달린 거리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계산한 결과, 약 120톤의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 2만 8726그루를 심는 효과에 해당한다.

기부금도 마련됐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이번 행사에 함께한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총 주행거리 1km당 1원으로 환산한 84만1419원에 차액을 더해 총 1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사랑의 열매와 연계해 에너지소외층 및 독거노인 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금년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을 통해 서울자전거 따릉이가 활성화와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캠페인 이후로도 자전거 출퇴근 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이 회사 어때?” 23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열린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43곳이 참여한 이날 박람회에서는 기업 면접, 취업 컨설팅, 모의 면접 등이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임금, 고용안정, 혁신역량 등에서 청년에게 선호 받는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행정전산망 또 오류… 나라장터 1시간 먹통

마감 앞둔 입찰공고 1600건 연기 조달청 “해의 집중접속… 과부하” 여야 질타… 행안부 “재난 아냐”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1시간 가량 불통됐다.

23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1분까지 행정 전산망이 또 먹통이 되며 나라장터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 장애 원인은 해외에서 집중적으로 접속이 시도되면서 전자조달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때문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이에 조달청은 장애가 일어난 시간에 제출 마감 일시가 도래한 1600여 건의 입찰 공고를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반 입찰할 때 활용하는 플랫폼이 마비되면서 약 1시간 지연됐다”며 “현재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7일부터 사흘간 정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서류 발급 등에 큰 차질을 빚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통해 지난 주말 지속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행정안전부를 질타했다. 회의 도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이 1시간 동안 마비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비판 수위는 거세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조달청 전산망이 또 1시간 동안 마비됐다”며 “금방 복구됐으나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 역시 “2004년부터 20년 동안 전자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해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김용환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진 디지털 정부라는 자부심이 조금 손상된 것은 사실”이라며 “체면을 많이 구긴 것은 맞다”라고 꼬집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고기동 차관은 잇따른 행정 전산망 사고에 거듭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디지털 재난 수준으로까지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보상에 대한 질의에도 즉답을 피했다. 고 차관은 “장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방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은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카카오톡을 질타하고 공격했다”며 “전산망 마비는 더 중대한 사태인데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는 피해 접수장구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일터진 다음에 나 몰라라 한다”면서 “카카오톡 먹통 때는 재난 문자를 보내놓고 이번엔 문자 한 건도 보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카카오 사태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것”이라며 “재난 문자 역시 사고 이틀 뒤 복구 과정에 대해 발송됐다”고 말했다. **백익경 기자 ekpark@**

위안부 피해자 대상대 2심 승소 법원 “손배 청구금액 전부 인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박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2016년 1심 소송 당시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그 유족 21명이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했던 청구 금액 각 2억 원을 수용한 것이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국제법 관습상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해 피해자 할머니들과 그 유족의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다른 주권 국가를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법정지국(소송이 제기된 법정이 위치한 국가) 영토 내에서 그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킬 경우 국가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내용의 이탈리아, 브라질 판결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면제와 관련한 국제법 체계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최근 변화를 설명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박꽃 기자 pgot@**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 2023-1039호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연고 민사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 제12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물(사체)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주소	사망 일시	사망(발견)장소	처리 방법
박은남	1940. 08.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경동 253번지	2023. 10.0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송광장도 69	화장 후 봉안
남	1940. 08.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인연중앙길 33 3동 301호	2023. 10.06.	별빛원터 (행정시 매송면 서해로 2448-32)	화장 후 봉안

2. 사체의 발생사항 : 상록구 예송광장도 69 사망의 병원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전무한 상태로 병사함.

3. 시체처리 및 보관장소
가. 처리방법 : 화장(화장일시 : 2023. 11. 04.)
나. 봉안장소 : 화성향백산주공원 별빛원터 (경기 화성시 매송면 서해로 2448-32)
4. 공고기간 : 2023. 11. 21. ~ 2023. 12. 21. (1개월간)
5. 연락처 : 안산시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031)481-6267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연금, 어디서 할까?”



퇴직연금



주택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모~~~든 연금 신한에 물어보세요

꿈꾸는 연금,
행복한 인생
신한은행

퇴직연금, 주택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까지 연금은 역시 신한은행

- 23년 11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 최초 업무협약 체결
- 퇴직연금 수익률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
- 연금 받을 때 더 많이 받으시라고 연금수령 IRP 계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 퇴직연금 중요 알림과 정보를 제공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카카오톡 전용채널
- 평생소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 SOL 연금라운지
- 신한은행 연금고객님을 위한 필수 금융정보 52주 레터

[신한 연금라운지] 신한은행 고객님을 위한 맞춤형 연금 상담 전용 공간

- 일산: 11월 22일 오픈 (031-812-3655, 주엽역 5번출구 신한은행 건물 4층)
- 노원: 11월 27일 오픈 (02-6224-5499, 노원역 5번출구 신한은행 건물 3층)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개인형IRP의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상법 퇴직급여 특별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전용 상담센터 1833-3327(평일 9시~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3-15354-1호(2023.11.17~2024.8.30)



영화 '괴물' 스틸컷.

사진제공 ㈜NEW

다른 장소, 같은 시간' 하나로
크로스 커팅→교차 편집

‘영화’로운 우리말

영화의 최소단위는 장면(shot)이다. 수많은 장면으로 이뤄진 영화에서 각 장면을 어떻게 이어붙일 것인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퇴근 후 집에서 치맥을 즐기는 직장인의 모습과 수술실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의사의 모습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다. 하지만 두 모습을 나란히 이어붙인다면 '모종의 의미'가 생성된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촬영되는 것' 이면서 동시에 '구성되는 것'이다. 영화는 촬영된 장면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여러 부품을 하나의 구조물로 짜 맞추기. 그게 바로 영화의 본질이다. 영화를 '편집의 예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화의 여러 편집 기법 가운데 크로스 커팅(cross cutting)이라는 기법이 있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을 교대로 보여주는 기법이 바로 크로스 커팅이다. 극적 긴장을 높일 때 주로 사용된다.

국립국어원은 크로스 커팅을 '교차 편집'으로 순화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병치하는 교차 편집은 장면과 장면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영화적 힘에 주목하는 기법이다.

영화 '동주'에서 이준익 감독은 일제를 규탄하며 연설하는 송몽규(박정민)의 모습과 자신의 시집 번역에 관한 일로 친구와 통화하는 윤동주(강하늘)의 모습을 교차 편집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교차 편집은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을 병치함으로써 장면 사이에 특정한 인과를 형성한다.

송석주 기자 ssp@

사랑의 '규격'을 찾다 생겨난 '편견'이라는 괴물

고레에다 감독 '괴물' 29일 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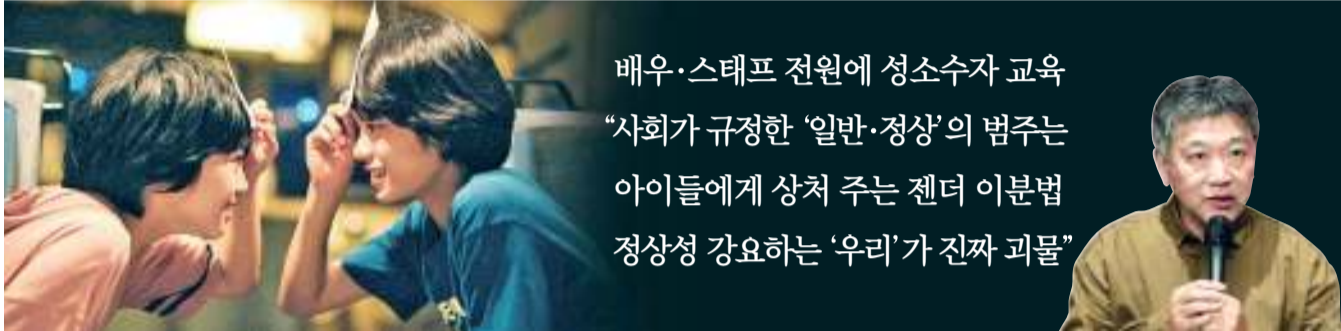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괴물'은 사랑에 관한 영화다. 22일 언론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영화는 초등학교 5학년인 미나토(쿠로키와 소야)와 요리(히이라기 하나타)라는 두 소년의 관계성을 통해 '사랑의 형태'는 진실로 어떤 모양인지 묻는다.

영화는 '남성스러움(혹은 여성스러움)'을 강요하는 젠더 이분법이 자리나는 아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새길 수 있는지 묘사한다. 그런 점에서 제목이 지칭하는 괴물은 폭압적인 젠더 체계일 수도 있고, 그 체계에 갇혀 타인의 성적 지향을 차별·혐오하는 우리 모두일 수도 있다.

이날 언론시사회 직후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고레에다 감독은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공부하는 자리 많이 가졌다"며 "성교육을 포함해 LGBTQ(성소수자)를 담당하는 선생님들 모셔와야 할 배우는 물론이고 현장 스태프들 모두 교육 받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성적인 문제가 많다. 아직도 대부분 지역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는) 가족의 형태, 부모의 형태, 사랑의 형태에 관해 정치·사회적인 면에서 매우 좁게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화에는 '남자가', '남자다'



배우·스태프 전원에 성소수자 교육
"사회가 규정한 '일반·정상'의 범주는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젠더 이분법
정상성 강요하는 '우리'가 진짜 괴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

움' 등의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상대를 상처 주기 위해 서가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다"며 "(상처 줄 의도는 없었지만) 그런 말을 듣는 소년들에게는 폭력과 억압이 가해진 다"고 설명했다.

극 중에서 미나토와 요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이 같은 마음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못한다. 자신들의 사랑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사회적으로(혹은 괴물로부터) 강요당해서다. 사회가 규정한 '일반'과 '정상'의 범주에 대해 고레에다 감독은 영화적으로 비판한다.

영화는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아들 미나토의 이상 행동에 학교를 찾아가는 엄마 사오리(안도 사쿠라)의 시점. 2장은 미나토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학교에서 쫓겨난 선생 호리(나가야마 에이타)의 시점. 3장은 영화의 핵심 인물인 미나토의 시점이다.

극장에 앉은 관객들은 이 영화의 '괴물'이 누군지 찾게 된다. 부모인지, 선생인지, 아이들인지. 같은 사건을 두고 펼쳐지는 여러 인물의 시점 교차를 통해 영화는 뚜렷한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들만 남게 되는 기이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고레에다 감독은 데뷔작 '환상의 빛'을 제외하면 늘 각본을 직접 담당했다. 하지만 이번 영화의 각본은 드라마 '도쿄 러브 스토리', '우리들의 교과서' 등으로 명성이 높은 사카모토 유지가 썼다. 두 거장의 협업으로 '괴물'은 제76회 칸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다.

고레에다 감독은 "사카모토 유지의 각본을 읽으면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나도 모르겠는데 나쁜 괴물 찾기를 하고 있었다. 화살을 누구에게 들릴 것인가 생각했다. 내가 느꼈던 걸 관객들이 비슷하게 느꼈으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굳이 괴물이 누군지 찾고자 한다면 일단 '우리'라고 말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두 소년(미나토와 요리)을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3명의 남자이다. 또 그들이 놀릴 때, 옆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부추기는 아이들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 학교에서 가장 큰 괴물은 그렇게 부추기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화의 마지막, 미나토와 요리는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산속의 고장 난 기차 안에서 나와 어디론가 뛰어간다. 카메라는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기로 한 소년들의 몸짓을 아름답게 담아낸다.

10월 열린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국내에 처음 공개된 '괴물'은 29일 개봉한다. 국내 개봉 일본 실사영화 중 사전 예매량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송석주 기자 s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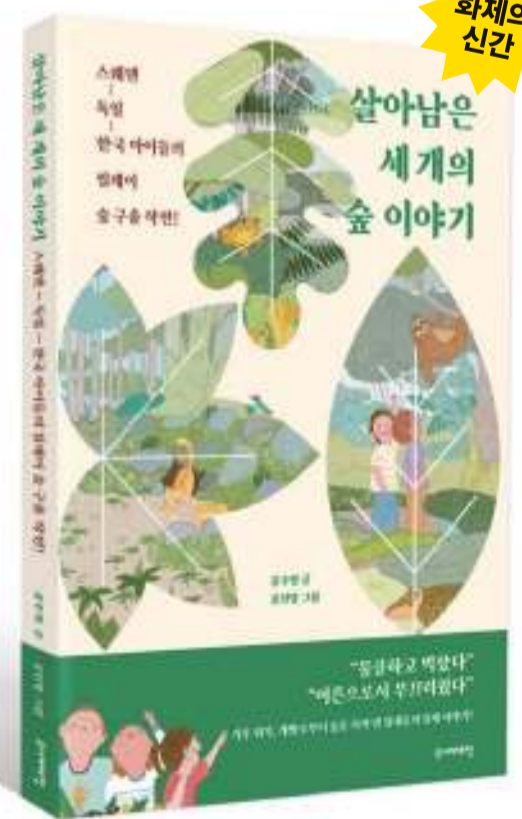
환경 파괴, 개발로부터 숲을 구한 스웨덴-독일-한국 십대들의 실제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탄탄하고 흥미롭게 쓰인 청소년 환경 논픽션!

- * 스웨덴 십대들이 구한 코스타리카의 '영원한 어린이의 숲'
- * 독일의 아홉 살 소년 펠릭스 핑크바이너에서 시작된 '나무 1조 그루 심기 운동'
- * 원시림 '꽃자왈' 개발을 막은 제주의 아이들

- ♣ "세 편 모두 실화란 점이 어른으로서 부끄럽게 한다." — 신경준(송문중학교 환경교사, 환경교사모임 공동대표, EBS중학 환경 강사)
- ♣ "어른들은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은데 아이들은 일단 해 본다. 지구가 계속 숨 쉬는 건 이런 사람들 덕분이다." — 이용규(선홍초등학교 교사)
- ♣ "걱정, 불평만 늘어놓지 말고 책의 주인공들처럼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키자! 책을 읽는 내내 몽글하고 벅했다." — 안도연(안산초등학교 교사,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 모임 회원)
- ♣ "동물, 숲, 강, 바다, 지구를 지키려는 청소년들의 행동이 지역, 나라,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 책은 그 거대한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 문용포(꽃자왈작은학교 대표교사)

살아남은 세계의 숲 이야기 글 공주영 | 그림 공인영 | 184쪽 | 14,000원 | **주니어태학**



화제의
신간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은 '배움' '진짜 공부' 재미 제대로 느껴야

명사와 함께하는 북스북
강원국 작가

말하듯 쓰고, 쓰듯 말하기는 늘 어렵다. 강원국 작가는 그 어려운 걸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실 행정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 대우 김우중 전 회장과 효성 조석래 회장의 스피치라이터로 일하며 글쟁이로 꽤 굵직한 경력을 쌓았다. 이후 집필, 강연, 방송 활동을 하며 '말발', '글발' 세우는 사람으로 정평이 난 그가 새 책을 냈다. '강원국의 진짜 공부'는 도약을 앞둔 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전한다.

8년간 두 대통령의 말과 글을 다듬었던 경험과 내공을 담은 '대통령의 글쓰기'를 비롯해 '회장님의 글쓰기', '강원국의 글쓰기',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 '강원국의 결국은 말입니다' 등 글과 말에 관한 책으로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출판 시장에서 50만 부 넘는 판매량을 올렸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임에서 매일 말하고 써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길잡이가 됐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강연을 다니고, KBS 라디오 프로그램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을 진행하며, 방송이나 유튜브에도 출연한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바로 전날 오전에도 신간 '강원국의 진짜 공부' 홍보차 모 뉴스에 출연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공휴일이라 시청률이 많이 나왔나 보다'라는 겸손한 한마디에 묘한 기쁨이 묻어났다. 글쓰기와 말하기 전도사 강원국 작가가 갑자기 공부 이야기라니, 그 까닭은 무엇일까?

"원래 글쓰기 전문가였어요. 신입사원 시절 열렬결에 맡아 쓴 대우증권 창립 20주년 사사(社史, 회사의 역사 또는 그 기록)도 고발개발이었습니다. 기한을 맞춰야 해서 끝만 그럴싸하게 만들었는데 단숨에 글 잘 쓰는 사람이 됐죠. 그 계기로 사보와 사내 방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됐어요. 일은 하다 보니 늘더군요. 인정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적은 자가 살아남는다, '적자생존'이다, 생각하며 임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든, 청와대에서든, 하루하루 해 내지 못하면 끝장이라는 압박이 심했어요. 치열한 시간 속에서 살길은 공부뿐이라 여겼습니다. '강원국의 진짜 공부'에는 직장 생활 25년을 포함해 퇴직 후 현재까지 말, 글, 사람 공부로 깨우친 바를 모두 담았습니다."

인생에 한 번은 해야 할 공부

올해로 강의 10년 차를 맞은 그는 가는 곳마다 공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나요?', '도대체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등 다



**'하루하루 끝내지 못하면 끝장' 압박서
'치열한 시간 속 살길은 공부뿐' 깨달음**

**못하는 분야는 과감히 가지치기하고
잘하는 부분 보다 더 살리는 게 중요**

양하다. 공부에 대한 그의 사유와 결론을 책에 꼭꼭 눌러 썼다. △말하기, 쓰기 중심의 공부 △혼자 하거나 경쟁하기보다 함께 하고 협력하는 공부 △소유보다 공유를 넓히는 공부 등 총 여섯 가지다. 기존에 저술한 말과 글 관련 책들이 '출력'을 위한 조언이라면, 이번에는 '입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나이가 드니 공부가 참 재밌더라고요. 학교 다닐 적에는 오직 시험을 잘 보려 공부했지만, 지금은 필요와 기호에 따라 여러 곳에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공부를 해요. 현역 시절보다 물질적·정신적으로 많은 투자가 가능하기도 하죠.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이 공부의 요령을 알려줘 성취감도

더욱 크고요. 많은 사람이 그렇듯 저도 이제껏 공부라는 행위를 가장 많이 했어요. 평생 배우고 그걸 나누는 게 우리 삶인 것 같네요. 제가 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진짜 공부의 의미를 깨닫고 성장하는 방법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의 초과 달성, 그리고

강 작가는 공부할 때 '사사구통'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사구통'은 고스톱 용어인데 명파 4장, 피 4장, 피 9장으로 모아놓은 패는 많지만, 딱 하나씩 패가 모자라서 결국 점수를 하나도 못 내는 경우를 뜻한다. 타인의 기준에만 맞추며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놓이기보다, 자신 있거나 하고 싶은 공부를 해서 만족을 얻어야 삶이 행복하다. 그 덕에 '대통령을 모시던' 그는 이제 술한 일정을 소화한다. 강원국 이름 석 자를 내걸고 본인의 경험, 지식, 생각을 나눈다. 강 작가는 비로소 '진짜 나'를 찾은 것 같다.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는 분야만 남기고 잘 알지 못하는 분야는 과감히 가지치기한 거예요. 이제 조직의 인정과 평가, 공동의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쉰 살이 되기까지 세상에 섰대질하고, 세상과 불화하며 살았어요. 공황장애나 과민대장증후군도 겪었죠.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까지 큰 일 날 것처럼 굴었나 싶기도 해요. 지금은 아주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저 나만의 소소한 계획을 세우며 지내요. 책 10권 출간이 일생의 목표였는데, 2023년이 가기 전에 딱 열 권을 채우게 돼요. 사실 올해 두 권이 더 나오거든요. 조기 달성이자 초과 달성이 유력하네요. 또 나름의 꿈을 꾸겠지만, 누군가 채근하고 확인하려 덤비지 않으니 부담은 없어요. 나다운 속도로, 내 길을 가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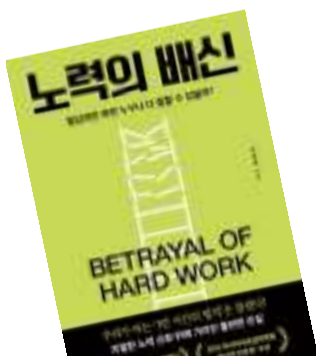
글/ 문혜진 기자 hjmoon@
사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삶의 방향을 짚을 수 있는 책

▶ **일이란 무엇인가**
고동진 저
민음사



▶ **노력의 배신**
김영호 저
21세기북스



▶ **끈기보다 끊기**
유영만 저
문예춘추사



▶ **공간의 미래**
유현준 저
을유문화사



"고동진 삼성전자 전 사장은 1984년 삼성전자에 사원으로 입사한 뒤 유련연구소장, 상품기획팀장, 개발실장 등 주요 직책을 거치며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소위 'SKY' 출신이 아닌 데다 어려운 집안 형편을 극복하려 집요한 노력으로 차근 차근 승진했고, 사장 자리까지 올랐어요. 저자는 오직 일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건넵니다. 일이란 무엇인지, 왜 일하는지, 어떻게 일할 것인지 등 38년간 삼성에서 배운 고든 내용이 담겨 있죠."

"대한민국 사회는 대개 개인의 노력을 강조해요. 누구든 무언가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책 '1만 시간의 법칙'이 많은 지지를 얻은 것처럼요.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 저자는 그동안 우리가 진리처럼 믿어온 노력의 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노력과 재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분석하고, 성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네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능력주의의 한계를 밝히죠. 노력 신봉 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동안 '끈기'는 용기이자 삶에서 빛을 발하는 요소로 해석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견뎌야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서였죠. 이제 '끈기'의 용도가 다했다는 게 저자의 관점입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얼마나 '끊기'를 잘했느냐가 앞으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성공은 역설적이게도 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나온 시절을 정리하고 점검하면서 한 번 더 도약할 힘을 얻는 과정이에요. 이 책은 인간이 버리는 연습을 어떻게 하고, 행복한 성숙을 만들어갈지 조언해줍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바뀌면서 공간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건축가인 저자는 집, 회사, 학교, 공원, 상업시설 등 생활 시설들의 가까운 미래를 예측합니다. 구체적으로 마당 같은 발코니가 딸린 아파트, 맞춤형 교육 과정이 있는 학교,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선형 공원, 분산된 거점 오피스로 나뉜 회사, 집과 가까운 작은 공원도 도서관, 자율 주행 로봇 전용 지하 물류 터널, DMZ 평화 도시 등을 제시하죠. 단순한 공간 이야기를 넘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계층간의 갈등을 줄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롯데웰푸드 자일리톨검

‘충치 예방’ 전국민 애용... 누적 매출 2조 돌파

롯데웰푸드는 2000년 출시돼 올해로 23년째를 맞은 롯데자일리톨검이 지난해 말까지 2조3000억 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3분기까지 매출 실적이 전년대비 두 자리 수 증가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라, 연간 평균 매출액을 넘어설 가능성도 크다.

롯데자일리톨검은 우리나라 자일리톨검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롯데자일리톨검에는 자일리톨과 함께 치아 재석회화 효능이 있는 후노란(해조 추출물)과 CPP(카제인 포스포 펩타이드), 인산칼슘 등이 들어 있어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충치예방, 입냄새 제거 등 효과도 있어 소비자들의 긍정적 구매가 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씹는 활동이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이어지면서 씹기를 위한 소재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롯데자일리톨검은 매년 약 10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거두며 국민검으로 자리를 굳혔다. 판매 기준으로 매년 1억 2000갑에 육박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이 연간 약 2갑씩 씹을 수 있는 거대



롯데자일리톨검. 사진제공 롯데웰푸드

한 양이다.

롯데웰푸드는 자일리톨검의 판매 수익금으로 사회 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추진해온 닥터자일리톨버스 사업이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이 사업은 롯데제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13년부터 함께해 온 사회 공헌활동이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충치예방연구회와 유아 충치예방 교육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한 이 사업은 충치 예방 모범유치원으로 선발된 44여 개소, 3~5세 유치원 어린이 약 4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롯데칠성 새로

한국 감성 ‘제로슈거 소주’... 年매출 1000억 눈앞

새로가 올해 3분기 누적 927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연내 매출액 1000억 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23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작년 9월 첫 선을 보인 새로운 기존의 소주 제품과는 달리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슈거(Zero Sugar)’ 소주다. 출시 이후 4개월여 만에 누적 판매량 5000만 병을 넘어섰다. 또 출시 7개월 여만인 4월 누적 판매 1억 병을 돌파했다.



새로. 사진제공 롯데칠성

롯데칠성음료는 올 4월 흡수를 비롯해 캠핑, 피크닉 등 야외활동에 나서는 소비자를 위해 새로 페트(640ml) 제품을 출시하는 등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새로운 도자기의 곡선미와 물방울이 아래로 흐르는 듯한 세로형 흡을 병에 적용해 한국적이며 현대적인 감성을 녹였다. 동시에 투명병을 적용해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특히 출시 당시 구미호 캐릭터인 새로구미를 브

랜드 앰배서더 캐릭터로 선정하고 제품 전면 에 배치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운 생산하는 강릉 공장에 브랜드 체험관을 오픈하며 새로운 탄생 스토리 및 브랜드 히스토리 등을 홍보 중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특장점을 알리는 TV CF와 애니메이션 형태의 동영상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였다. 브랜드 체험관 예약사이트는 5월 오픈 직후 약 보름 간 7만여 명이 방문해 예약을 완료하기도 했다. 시즌제로

예약이 진행되는 브랜드 체험관은 체험 예약 사이트 ‘강릉 처음처럼&새로 브랜드 체험관’을 통해 예약 진행 중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새로가 제로 슈거 소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주로 자리잡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GRS 동반성장

롯데리아, 지역 맛집과 협업... ‘상생 메뉴’ 인기

롯데리아가 전국의 유명 맛집 메뉴를 선보이는 등 지역 상인과 동반성장에 나서고 있다.

23일 롯데GRS에 따르면 롯데리아는 최근 부산 강동 시장의 강태후 야시장과 협업한 ‘강태후 돼지후라이드’를 디저트 신메뉴로 선보였다. 10월 26일 출시 이후 이 메뉴는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40만 개를 넘었다. 강태후 돼지후라이드는 은은한 갈비 맛과 바삭한 식감이 특징인 디저트다. 크림치 마늘소스, 갈비맛소스, 크림치양념소스 등을 곁들일 수 있도록 구성해 남녀노소 선호하는 달고 짭짤한 맛을 구현했다. 롯데리아는 또한 디저트 메뉴 다양화 실현, 지역상생 및 동반성장 목적으로 ‘롯데단길’ 육성 메뉴도 선보이고 있다. 롯데단길 육성 첫 번째 메뉴는 올해 6월 선보인 청주 유명 맛집의 매운맛 만두다. ‘미친만두’와 ‘매운만두’를 출시, 1개월 만에 1차 생산 재고 물량이 모두 소진됐고 9월까지 누적 판매량 100만 개를 돌파했다.

롯데GRS는 롯데리아의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롯데리아가 부산 강동시장의 유명 맛집과 협업한 상생 메뉴 ‘강태후 돼지후라이드’.

사진제공 롯데GRS

로, 검증된 지역 유명 맛집과 협업해 지역 유명 메뉴를 전국 매장 이용 고객에게 소개하고 지역 맛집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맛집과 협업 및 상생 실현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부산강동시장상인연합회와 시장 활성화 위한 상생 협약을 맺기도 했다. 롯데GRS 관계자는 “지역 맛집과의 협업은 메타버스 가상세계 ‘맛츠스 내타운’에 전국 유명 맛집으로 구성된 롯데단길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서식품 맥심 커피믹스

춘식이와 함께... 인기 캐릭터 품고 ‘MZ취향’ 저격

동서식품이 맥심 커피믹스에 인기 캐릭터를 더해 젊은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동서식품은 맥심 커피믹스가 올 겨울 여섯 번째 브랜드 컬래버레이션인 ‘맥심X카카오프렌즈 춘식이 스페셜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스페셜 패키지는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맥심 화이트골드, 맥심 슈프림골드 등 3종으로, 각 패키지와 커피 스틱에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캐릭터 춘식이의 일상을 일러스트로 담았다. 또한 무드등, 핸드워머쿠션, 브런치 식기세트, 파우치, 주방장갑, 후드 담요 등 6종의 굿즈가 포함됐다. 춘식이 특유의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매력에 실용성까지 더해졌다.

동서식품은 2018년 ‘카카오프렌즈’를 시작으로 ‘키티버니포니’, ‘무민’, ‘유니버설 스튜디오’, ‘미니언즈’ 등과 협업 상품을 선보였다. 첫 협업인 카카오프렌즈는 출시 한 달여 만에 준비 물량 68만 개가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듬해 출시한 키티버니포니 스페셜 패키지는 디자인 브랜드인 키티버니포니가 가진 트렌디함을 더해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선사했다. 2020년 선보인 무민 스페셜 패키



한정판 ‘맥심X카카오프렌즈 춘식이 스페셜 패키지’. 사진제공 동서식품

지는 탄탄한 마니아층을 가진 무민 캐릭터의 귀여움을 더해 호응을 얻었다. 같은 해 출시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컬래버레이션은 ‘조스’, ‘쥬라기 공원’ 등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클래식 영화가 지닌 레트로 감성을 독특하게 녹여냈다. 채혜인 동서식품 마케팅 매니저는 “맥심 커피믹스는 점차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뛰어난 맛은 물론 차별화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컬래버레이션과 한정판 제품을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테라·켈리

크리스마스·연말 한정판 출시... 소비자 공략

하이트진로는 맥주 ‘켈리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한정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크리스마스 에디션 디자인에는 크리스마스와 겨울을 상징하는 캐릭터와 북유럽 덴마크 감성을 더했다. 켈리의 맥아 원산지인 덴마크 국기를 오마주한 하트 모양 엠블럼을 적용하고 눈 내리는 배경에 눈사람과 산타클로스



하이트진로 ‘켈리 크리스마스 에디션’ 제품. 사진제공 하이트진로

캐릭터로 연말 분위기를 연출했다. 캔맥주(463ml)와 병맥주(500ml) 제품 2종으로, 전국 대형마트와 주요 상권 내 일반 음식점, 술집 등 주류 판매업소에 서 만날 수 있다. 병맥주 제품의 경우 2018년 하이트 엑스트라 쿨드 크리스마스 에디션 이후 5년 만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에디션 출시를 기념, 특별 제작한 크리스마스 스페셜 잔을 포함한 기획 상품을 판

매할 예정이다. 테라도 ‘싱글몰트 에디션’을 한정 출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출시한 에디션은 기존의 국내 라거 최초 싱글몰트 콘셉트에 싱글홉을 더해 재탄생했다.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은 호주 대표 청정 지역인 태즈메이니아 섬에서 자란 보리를 100% 사용하고, 홉도 태즈메이니아 산 단일 품종을 사용해 차별화했다. 호주 최남단 태즈메이니아 섬은 절반 이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세계적인 청정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은 355ml, 500ml 캔 제품 2종으로 출시, 전국 편의점과 주요 대형마트에서 한정 수량 판매한다.

제너시스BBQ그룹 리뉴얼 양념치킨

건강한 단맛으로 MZ 홀려... 하루 3만마리 판매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이 지난달 선보인 리뉴얼 양념치킨이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마리를 돌파했다.

23일 제너시스BBQ그룹의 BBQ 치킨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일별 판매량 환산 시 매일 3만 마리 이상 팔려, 현재까지 출시한 신제품 중 최단 시간 최고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또 전체 메뉴 중 양념치킨 판매 비중이 리뉴얼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30세대의 주문이 주를 이루며 여성 소비자들의 비중이 높다. 천연 재료와 향신료 등을 넣어 양념치킨을 업그레이드한 BBQ의 시도가 최근 헬시플레이저(Healthy Pleasure) 등 건강향식습관에 관심 높은 2030세대의 취향을 저격한 것으로 풀

이된다. BBQ가 새롭게 선보인 양념치킨은 기존 양념치킨과 달리 사과 푸레, 당근, 양파 등 최상의 천연재료로 건강한 단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올스파이스 등 천연 향신료를 더해 감칠맛과 풍미를 채우고 양념의 맛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튀김 베이스를 개선해 이전보다 더욱 풍부해진 맛과 식감을 선사한다. BBQ의 레시피를 만드는 R&D센터인 ‘세계식문화과학기술원’이 옛날 양념치킨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을 구현하기 위해 양념 배합비를 변경하고 천연 재료 함유율을 높여 건강하면서도 최적의 단맛을 추가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해 이번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BBQ가 지난달 선보인 리뉴얼 양념치킨이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마리를 돌파했다. 사진제공 제너시스BBQ그룹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스타필드·CGV 품은 '원스톱 라이프' 매머드 단지

현대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다음 달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아파트 744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2669가구 등 총 341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계약이 완료됐고 이번엔 아파트를 분양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위주로 구성되며 164㎡ 펜트 하우스도 6가구가 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단지 내에서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는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우선, 국내 최초로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인 '스타필드 빌리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상 1층~지상 4층 규모로 온 가족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카데미와 엔터테인먼트,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키즈 콘텐츠 등 일상생활 지원뿐 아니라 개인의 취향을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된다.

세계적인 건축기업 베노이가 설계하는 고품격 스트리트몰도 설치된다. 베노이는 스타필드 하남과



인천국제공항, 롯데월드타워 등을 설계했다. 멀티플렉스인 CGV, 유명 사립 교육기관인 종로엠스쿨도 입점한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운정역을 통하면 일산신도시와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 용산, 서울역 등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단지에서 운정역까지 보행데크와 브릿지도 연결될 예정이다. 자유로와 제2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GS건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교통·교육·주거 삼박자... 서울권 인프라 만끽

GS건설과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다음 달 광명 5R 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 동, 총 287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34~99㎡ 639가구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는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우선 교통이 편리하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이라 종로,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교육환경도 좋다. 단지 바로 옆에 광명동초가 있고 반경 1km 이내에 광명초, 광명중, 광명고도 위치했다. 연서도서관과 철산역 인근 학원가가 가깝고 목동 학원가는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서부간선도로가 근거리와 있고 남부순환로, 안양천로가 인접해 차량을 이용한 서울 도심, 강남, 수도권으로 이동 편의성이 높다.

단지 바로 옆에는 현충근린공원이 있고 안양천, 연



서어린이공원이 가까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광명전통시장, 롯데시네마, 광명민회관, 광명시청, 광명세무서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인근에 있고 코스트코 고척점, 아이파크몰 고척점, 고척스카이돔 등 서울권 쇼핑, 문화, 의료 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는 차별화된 설계가 곳곳에 적용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개방감, 채광, 통풍을 높였고 타입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DL이앤씨

품질 경영·기술력 바탕... 청약흥행·완판행진

DL이앤씨가 올해 청약시장에서 4개 단지 연속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역 최다에 이어 전국 최다 청약접수를 기록하며 브랜드 저력을 입증하는 모습이다. 분양 완판 단지에 이어 청약에서도 연달아 성공적인 성적표를 받아내면서 흥행 비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DL이앤씨는 최근 인천에 공급한 'e편한세상검단월가운티'가 최고 35대 1의 경쟁률로 당시 올해 인천 최다 청약접수기록을 세웠다. 또 지난 10월 24일 진행된 '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상'의 1순위 청약 접수에서도 총 13만3042명이 몰려 최고 43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올해 전국 공급단지 중 최다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뉴타운 일원에 선보인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역시 총 1만1437건이 접수돼 최고 595대 1의 경쟁률로 올해 강동구 공급 5개 단지 중 최다 청약접수 건수를 세웠다. 아울러 14일 진행된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최고 354.3대 1의 경쟁률(59㎡B)을 기록했다. 완판 행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결과는 회사의 품질 경영과 기술력이 인정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DL이앤씨 e편한세상은 비즈빅데이터연구소가 실시한 브랜드조사에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스마트아파트' 1위를 차지했다. e편한세상은 또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및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

대우건설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

뉴딜사업 선정·설계... 주거 환경부터 경쟁력 ↑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금호건설·계룡건설산업·흥한종합건설·우암건설)이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함께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급된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8개 동 총 960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74㎡, 561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단지가 들어선 문현동 일대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2024년까지 총 2646억 원이 투입돼 부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황령산까지 지역 간 연결을 확대하고 부산국제금융단지의 상근 인구와 지역의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침체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뉴딜사업은 단지가 조성되는 문현2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전포돌산공원 인근에 추



진 중인 경사형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과도 연계해 진행될 계획으로, 단지 주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반경 800m 내에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이 위치해 있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까지 5분 이내, 1·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까지 15분 만에 갈 수 있다. 또 홈플러스 서면점, 이마트 문현점, NC백화점 서면점, 트레이더스 홈세일 클럽 서면점을 이용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전국 사통팔달... 아산·천안 대표 신형주거지 부상

포스코이앤씨는 다음 달 충남 아산에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를 분양한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4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총 114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단지가 조성되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은 53만6900㎡ 부지에 약 4300가구 규모의 주거타운을 조성하고 학교, 녹지, 공공청사 등 입주민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조성에 따라 기존 아산을 대표하는 중심지인 아산신도시 권역이 확장되면서 일대는 향후 아산·천안을 대표할 신형 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단지는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지하철 1호선 탕정역이 가까워 이용이 수월하며 인근 천안아산역의 KTX·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당진~청주고속도로(아산·천안 구간 23년 9월 개통)가 인접해 있어 도로를 이용한 교통편의성도 높다.



또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모두 조성될 예정이다. 탕정역 일대에 조성된 학원가는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모다아울렛, 이마트, CGV, 갤러리아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탕정역과 천안아산역 일대에 위치한 여러 편의 시설도 이용하기 쉽다. 여기에 단지 남측으로 국교천이 흐르고 있고 도시개발구역 내 근린공원(예정)이 위치한 공세권 아파트이며, 인근 용곡공원, 지산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우미건설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

이천 중리지구 핵심 입지... 공원형 단지로 조성

우미건설이 경기도 이천시 중리택지개발지구 B1블록에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를 공급한다.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는 우미건설이 이천 중리지구에서 두 번째로 공급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 총 78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84㎡A 728가구 △84㎡B 57가구다.

단지는 중리지구 내에서도 우수한 입지에 들어선다. 단지가 위치한 중리 지구는 시청, 세무서, 경찰서 등이 인접하고 약 4200여 가구로 계획된 택지지구로 조성된다. 특히, 원도심과 인접해 기존의 풍부한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다.

단지는 인근에 유치원(예정부지) 및 초등학교(예정부지)가 계획되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학세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앞 상업지구와 도보권 대형 근린공원이 예정되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망도 풍부하다. 서이천IC를 통해 중부고속도로, 이천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고 경강선 이천역 이용 시 판교, 분당, 광주, 여주 등 이동이 편리하다. 또 단지 인근으로 SK하이닉스, OB맥주, 시청, 세무서 등 직주근접 요소를 갖추고 있어 배후수요 단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는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4베이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또한 주차장을 100% 지하화(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승계, 경영 전반의 맞춤형 컨설팅

IBK 컨설팅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중개·주선 지원

M&A 생태계 조성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946호(2023.08.29) 유효기간(2024.08.28)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문학의 쫓



이승하
시인·중앙대 교수

개성관광이 가능했던 시절, 개성에 가서 세 가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서민아파트의 바깥 창문이 거의 다 깨져 있었다는 것. 유리가 깨져 있으면 겨울에 외풍이 셀 텐데,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추렴해 유리를 갈아 끼울 돈이 없는 모양이었다. 출근하거나 들일 하러 가는 주민들의 옷 색깔이 다 우중충했고 사람들이 활기가 없어 보였다.

세 번째 놀란 것은 선죽교에 갔을 때였다. 선죽교에 대한 설명이 돌에 새겨져 있는데 정몽주나 이성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여러 차례 이곳을 찾으시어 문화유적들에 대한 관리를 잘하여 주변을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처로 꾸릴 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는 말로 시작

일, 남쪽 문인 4명과 탈북 문인 6명의 만남 자리를 추천하였다. 탈북 문인들이 수기와 소설집, 시집을 내기 시작한 지 20년이 더 되어 150권을 돌파했는데 남쪽 문단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탈북 문인들도 답답하고 재단에서도 맥이 빠질 것이다. 통일논의나 분단극복, 동질성 회복 등은 헛된 구호가 된 지 오래다. 이산가족의 만남, 개성공단의 재건설, 남북적십자사 회담 재개 등을 위해 노력을 해볼 수는 없는 것일까? 이산가족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2006년에 한국에 와서 북한학 박사 받는 위영금 씨가 시집을 주기에 읽어보았다. 중국과 동남아에는 탈북을 돕는 브로커들이 있는데 "중국→미얀마→라오스→태국→캄보디아 또는 몽골/한밤에 이루어진 거래는 때로 배신

‘외롭지만 불행하진 않아’

되고 있었다. 북한이 얼마나 심한 통제 사회인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설명문이였다. 그 아래에 '선죽교는 고려 초기에 놓은 다리로서 길이 8.5미터, 너비 3.36미터이다.' 하면서 본격적인 설명이 시작되었다.

북한은 당원과 비당원의 신분차가 너무 심하므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탈북작가 김정애의 소설을 보면 주인공의 어머니가 가족 중에 월남자가 있다는 이유로 딸의 대학 합격이 취소되는 비보를 접한다. 전쟁 당시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에 월남자가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었다. 전쟁 당시에 살았던 동네 노인 7명의 증언이 있으면 신분 추락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해서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노력해 6명의 증언을 얻어내지만 1명이 월남했는지 모른다고 도장을 안 찍어줘 결국 이혼을 당하고, 주인공은 강제노동 소인 '돌격대'로 간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11월 4

을 당해/버려지거나 쇠고랑을 잘 때도 있습니다"로 보건대 여정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가족을 두고 왜 북한을 떠났던 것일까? 남쪽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그들은 말한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여고생으로서 가족을 두고 단신 탈출한 여성의 명함에는 자신의 책 제목이 적혀 있었다. '외롭지만 불행하진 않아.'

최근에 북한에 인접한 중국 라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되어 있던 탈북민 600여 명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었다고 한다. 제자 중에 북한 장교 출신이 있었는데 군 장성이던 부친이 실각하는 바람에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껴 탈북했다고 한다.

중국 공안에게 잡혀 북한으로 잡혀가던 중 달리던 열차에서 뛰어내려 재탈출, 남쪽에 와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몽골의 사막에 죽은 자식을 묻는 장면도 시를 통해 보았다. 이런 식의 비극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한 컷



추억 한아름 '사랑의 자물쇠'

남산서울타워 아래 빼곡하게 걸린 사랑의 자물쇠. 자물쇠에 쓰인 외국어 문구가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터널을 지난 것을 실감나게 한다.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바라며 하나둘씩 걸어두던 것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남산을 찾으면 체험해 봐야하는 '명

물'이 됐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을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사랑의 자물쇠를 걸고 가길 바란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슈&인물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이끄는 오세웅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

“렉라자는 미국시장 뚫을 신약”

“전체생존기간(OS) 데이터가 나오면 ‘렉라자’의 가치는 또 한 번 올라갈 것입니다. 파트너사와 협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용인시 기흥구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에서 본지와 만난 오세웅(53) 중앙연구소장(부사장)은 폐암 신약 렉라자의 성공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렉라자는 국내 최초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가능성이 점쳐지는 유한양행의 연구개발(R&D) 산물이다.

2011년 유한양행에 입사한 오 연구소장은 2020년부터 회사 R&D 중심 축인 중앙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유한양행은 올해 5월 중앙연구소를 사업본부급으로 격상, 오 연구소장도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R&D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유한양행의 의지가 반영된 재편이다.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압박... 경쟁 약 대비 '장점' = 렉라자는 2021년 1월 허가된 국산 31호 신약이다. 1·2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를 투여하고 T790M 내성이 생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쓰인다. 올해 6월 1차 치료까지 적응증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에 도전하고 있다.

지나해 33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렉라자는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되면 단숨에 연매출 1000억 원 고지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적응증 변경 허가 2개월 만에 암질 환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지난달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까지 통과해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만 남겨놓은 상태다. 경쟁상대 '타그리소'보다 출발이 5년 늦었지만, 순식간에 따라잡았다.

유한양행은 7월부터 조기 공급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 EAP)을 통해 급여 확대 시점까지 렉라자를 환자들에게 무상 공급하고 있다. 연간 7000만 원이 넘는 약가 부담을 덜어주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통 큰 결단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오 연구소장은 “우리가 개발한 약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정”이라며 “올해 가장 의미 있는 사업으로 우리 직원들의 긍지도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미FDA 허가 시간 문제... 조단위 치료제 예약 = 지난달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ESMO 2023)에서는 파트너사 안센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 유효성을 평가하는 마리포사(MARIPOSA) 임상 3상 연구의 중간 데이터를 공개했다. 관심을 끌던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은 23.7개월로 압도적인 결과를 내놓진 못했다.

오 연구소장은 “막연하게 드라마틱



오세웅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은 최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연구소에서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렉라자의 미국 FDA 허가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 기댓값이 시장에 존재했던 것 같다”라며 “임상을 통해 얻고자 했던 중요한 통계학적 데이터들은 확보했다. 1차 평가변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사전에 충분히 교감해 허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렉라자는 반동할 열쇠를 쥐고 있다. 환자가 치료를 시작해서 사망하는 순간까지를 추적한 OS 데이터다. 안센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그동안 EGFR 표적항암제와 다른 약제의 병용은 여

美 FDA 허가 눈앞... ‘파급력 클 것’ 당분간 무상공급... CSR에 반응 좋아 실력 키워 글로벌 제약사 도약 목표

러 번 시도됐지만, 대부분 PFS만 증가하고 OS에서는 우위를 보이지 못해 사용되지 않는다”라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서는 OS가 우리의 목표를 충족할 가능성을 보여줬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안센은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성공을 예상하고 시장 가치를 연간 50억 달러(6조5000억 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렉라자가 단일요법으로 글로벌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 오 연구소장은 “국내에서 너무 저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안센을 통해 주요국에서 허가받고 시판되는 것이 가치권에 들어왔다”라며 “렉라자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넥스트 렉라자’ 라인업 꾸렸다 = 렉라자는 어느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약이 아니다. 렉라자 개발 이전 유한

양행의 R&D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회사는 꾸준히 투자하며 신약 개발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다. 오 연구소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R&D를 시작했다”라며 “2000년~2010년 사이 일시적인 부침이 있었지만, 빠른 속도로 이를 회복하면서 R&D 중심 회사로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말했다.

‘넥스트 렉라자’ 예비군은 벌써 추려졌다. 10종의 후속 신약 라인업을 갖춘 가운데 △베리거인켄하임에 기술수출한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치료제 ‘YH25724’ △지아이이노베이션에서 기술도입한 알레르기 치료제 ‘YH35324’ △에이비엘바이오와 공동연구하는 면역항암제 ‘YH32367’이 주력 파이프라인이다.

알레르기 치료제 개발 경쟁에서 YH35324는 안전성 측면의 우수성을 보였다. 원인물질을 무력화시켜서 천식, 두드러기, 아토피피부염 등 다양한 질환에서 쓸 수 있다. YH32367은 전임상에서 항암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올해 임상에 착수했다. 내년께 중간현황도 공개할 계획이다.

오 연구소장은 “정말 큰 회사가 되려면 해외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시장 규모가 작아 중국처럼 내수만으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미국과 같은 대규모 시장에서 직접판매(직판)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는 “신약의 판매까지 성공하려면 다양한 국가에서 마케팅 파워가 있어야 하고, 그걸 가진 회사들은 글로벌 빅파마다”라며 “우리가 직판까지 가기 위해 자본과 체력을 키우고 있다. 그 길을 단축하려면 경쟁력 있는 파이프라인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정상외교 결실, 디테일에 달렸다

5년째 지속되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 2년째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와 국제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무역이 위축되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으로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이 올라 우리나라는 2022년에는 14년 이상 지속된 무역흑자 시대를 마감하고 470억 달러의 역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무역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무역적자의 원인은 크게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둔 우리 기업의 대중 원자재 및 부품 수출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한다.

다행히 대통령이 국가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세계 각국을 누비며 취임 이래 93개국과 142회의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국가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가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다. 이러한 역동적인 광복 정상외교가 실질적인 경제협력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실무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정부가 씨를 뿌리면 그 결실은 기업이 거두어 들여야 한다.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한 약속이 있다면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꼼꼼하게 챙기고 피드백을 해야 국가 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다.

약속한 사업이 실무 부처의 검토 결과 부정적일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 벗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해당 국가 장관 등 당사자에게 잘 설명하고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후속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국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을 넘어 반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업의 가치수가 워낙 많고 이해관계도 다양해서 자칫 소홀히 하는 사업이 나올 수 있다.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짚어보자.

우선 인도네시아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관련이다. 인도네시아는 1억8000만 명의 인구

논현로

정운세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



와 넓은 영토를 가진 자원부국이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주석, 니켈, 구리 등 천연광물이 풍부하며 쌀, 팜오일, 커피, 고무 등을 수출하는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다. 지난 9월 한아세안 정상 회담에 참가하면서 윤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기차, 배터리, 농식품,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사업 30여 개가 우리나라 산업부를 통해서 외교부에 신청되었는데 심사과정에서 3개 사업만 통과되고 나머지 사업은 탈락했다. 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며, 업계에서는 외교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견제해서

생긴 일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걱정이다. 정확한 사실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국가적 이익보다 부처 이익을 우선하여 이러한 일을 결정한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사례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31일에 청년무역전문기양성프로그램(GTEP) 수료식 행사에 참석해서 '기업과 청년에 무한한 기회를 지원하겠다'며 GTEP사업비 증액을 약속했으나 사업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각 부처의 개별적 사업을 하나 하나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인세 인하에 수출감소와 내수경기 침체로 세수가 크게 줄어 재정상황도 좋지 않다. 게다가 국회는 행정부가 일을 하도록 예산지원으로 국정을 뒷받침해야 하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야당이 적대적인 태도로 예산을 멋대로 쥐고 흔들면서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 간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적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다.

여야가 합심해서 국익을 지키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 기리고 기업이 협력해서 정상회담의 결실을 거두고 국제적 신인도를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발(周勃)과 진평(陳平) 등 노신들이 역상의 아들 역기에게 친구인 여록을 속여 도성을 나오게 한 다음에 그를 제거했다.

역기의 행위는 친구를 판 것이라고 사서는 썼다. "무릇 친구를 팔아먹는 자는, 이익을 보게 되면 의를 잊는다[夫賣友者謂見利而忘義也]." 출전 한서(漢書) 역상전.

☆ 시사상식 / X2E(X to Earn)
결으면 포인트나 코인을 지급하거나 운전할 때도 안전거리 준수, 적정속도 유지 등 안전운전을 하면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것과 같이 특정 활동을 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의 영어 약자다.

최근 IT업계뿐 아니라 금융권, 바이오 기업도 개인의 특정 활동에 디지털 화폐 등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이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돈 버는 게임을 의미하는 'P2E(play to earn)'에서 파생했다. 금전 보상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뜻하는 말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현안을 둘러싼 삽바 싸움이 길어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계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방안을 요구했다.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경제단체 약속도 필요하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신문방송편집인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확대 시행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도 동어반복의 말 잔치만 계속된다. 국회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그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다. 업계는 이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의 일정을 목을 빼고 기다리지만, 원내다수당인 민주당 분위기로 미루어 뭇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충족될 수 없는 조건을 하나도 아니고 세 가지나 다는 것을 희망적 신호로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2021년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 대형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됐다. 이 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한 유예 연장안이다.

정부와 여당의 과잉 배려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회사 641개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89.9%가 유예 연장을 원한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란 것이다. 법 시행이 유예되지 않으면 '고용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18.7%에 달했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도 있다.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한다'는 기업도 16.5%였다. 돌이킬 수 없는 경영·고용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적색 경고다. 중기중앙회는 "83만 곳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호소에도 국회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연간 2000명을 웃도는 산재피해자를 줄여보자는 선의의 법이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덮여 있게 마련이다. 비현실적 독소조항이 허다한 점부터 큰 문제다. 처벌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해야 한다. 우선 2년 유예로 시간을 벌고 현실에 걸맞게 손질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이 있는데도 이중삼중의 멍을 놓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82.1%)의 수사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법의 한계 혹은 현실의 제약으로 인해 중소기업인이 주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물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 넓히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나. 거대야당이 왜 현실에 눈을 감는지 모를 일이다.

'파두 사태', 특례상장 취지는 살려야

'5900만 원.' 기업공개(IPO) 대어의 분기 실적으로서 눈을 의심케 하는 숫자였다. 올해 8월 상장한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가 지난 8일 만기 힘든 분기 실적을 내놓았다. 3분기 매출이 3억 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2분기 매출은 5900만 원에 그쳤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의도에서 만나는 증권맨들마다 슬렁대며 '충격'이란 표현을 썼다. 동네 맛집의 매출과 비교하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파두가 상장 전에 언급했던 올해 연 매출 예상치 1200억 원은 도대체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

'파두 사태'로 인한 충격파는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당장 파두가 받은 기술특례상장이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일각에선 폐지론까지 나온다. 기술특례상장은 당장 큰 이익을 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유망기업이 기술 혁신성 등 강점을 바탕으로 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유망 기업들은 파두 사태로 발목을 잡히게 될까 봐 수심이 가득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 들어 자금 조달 시장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자칫 상장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벤처캐피털(VC) 업계에선 당장 10월부터 대부분 딜 클로징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도는 상태다.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투심(投心)이 약해질까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게이트키퍼 역할에 충실했는지를 두고 주관사들을 조사한다는 소식이 여타 증권사들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등이 기술특례 상장 제도 자체를 손볼 수

노트북 너머

정성욱
자본시장부 기자



밖에 없는 그림이 그려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일일이 모든 기술특례상장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노릇인 만큼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지 않냐는 이유에서다. 이에 자칫 선량한 유망기업들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막히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기술 혁신과 성장 잠재력에 투자한다는 기술특례상장의 취지를 곱씹어볼수록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망 적자 기업의 투자 기회를 열어준다는 기술특례상장의 특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한계가 동시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공시주의 원칙'으로 되돌아가 보는 게 어떨까요." 증권업계에 평생을 바쳐온 한 관계자의 답변이다. 모든 시장 참가자는 자유롭게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공유받아야 한다. '당장은 적자이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미래 실적이 높을 것'이라는 정보가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공시제도를 손보되 이끌어 긴 당사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다행히 금융당국에서도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에 한해 실적 공시를 앞당기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란 얘기가 나온다.

sajikoku@

이투데이, 말투데이

☆ 데일리 캐네기 명언

"모든 어려움 뒤에는 인간관계에 따른 문제가 있다."

미국 작가. 그는 성인 대상 대화 및 연설 기술을 강연하며 이름이 알려졌다. '사람을 사귀고 친구로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며 15년간의 심혈을 기울인 실험 끝에 그는 인간관계 원리를 쓴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펴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 원리를 제시한 그의 책은 전 세계에 6000만 부나 판매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그가 제시하는 처세 철학은 바로 단 순 명료함이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88~1955.

☆ 고사성어/견리망의(見利忘義)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히다 보면 의리를 저버린다'라는 말이다. 역상은 한고조(漢高祖)와 한나라 창업 공신. 황제가 된 유방은 술한 전공을 세운 그를 우승상(右丞相)에 임명했다. 유방과 이후(呂后)가 죽자 여씨 세력 제거를 계획한 주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 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K-콘텐츠,
단다 준비했다 아이가

[영화의 전당에서, 부산 연극영화극단 김현준 이태민 최명경 님]

2030 부산세계박람회
**BUSAN
IS READY!**

부산에서 시작해 전세계가 함께하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가치를 위하여

**미래,
같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